

책뜰

책과 함께 숨 쉬는 곳

Vol. 4 | 2023. 11



우리
서로 書路
만나볼까?

<2023 청주독서대전 : 2023.4.15.~4.16.>



contents

2023 Issue & Topic

도서관 Issue

02 도서관과 인공지능 AI_장시랑

도서관 Topic

05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지는 2023, 신규 비대면 서비스

06 청주 아이러브 : 책과 함께 마음이 자라는 영유아들의 그림책 놀이터!

08 우리 서로(書路) 만나볼까? 2023 청주독서대전 서포터즈 후기

10 청주시를 읽는 즐거움, 『책으로 책(CHECK)!'폴집 읽는 인문 투어』

12 공간에 특별함을 담다 「서원도서관 재개관」

14 도서관에서 미래과학 읽기! 흥덕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소개

도서관과 사람

책읽는청주 선정작가 깊이 알기

17 아버지의 해방일지 _정지아 작가

18 순례주택 _유은실 작가

19 오늘부터 배프베프 _지안 작가

청주 아이러브 선정도서 작가칼럼

21 『아기가 태어났어요』가 태어난 이야기 _이루리 작가

24 『근데 그 얘기 들어요?』 작업 이야기 _밤코 작가

우리지역 작가 칼럼

28 간헐적 작가의 창작 분투기 _심진규 작가

도서관 人

31 도서관, 좀 시끄러워도 되겠습니까 _박현영

독서동아리 참여수기

33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독서 모임 _박주은

34 인생 2막에 만난 그림책의 세계 _이미숙

36 행복한 독서동아리, 가로수도서관 투게독 _이은미

도서관과 책

나의 책을 말하다

38 북유럽신화<저자:닐게이먼>를 읽고 _김수만

40 나의 안토니아 _구경자

42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_정미향

44 나의 인생 그림책 '나무의 시간' _이연정

사서가 쓰는 서평

46 죽음을 통해 드러다 본 삶, <참 괜찮은 죽음> _이유진

서고문을 열다

48 회복의 시대-상실의 시대를 넘어 책에서 길을 찾다. _박지은

도서관과 공간

국외도서관 탐방 이야기

53 피아체레 _이주화

도서관, 책방 투어

58 디지털 사이의 아날로그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_유동근

60 산티! 제주도 속 인도, 북카페 '바라나시 책 골목' _유동근

62 머무는 그곳, 동네 책방 _최지영

64 책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 주책공사 _이수현

나만의 책 읽는 공간 이야기

66 빨갛고 동그랗고 폭신했던 _황하은

청포도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가와와의 만남

69 도서관에서 시작 합시다

_전명순, 박미라

작은도서관 이야기

71 산남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의 '살만한 세상' 만들기 _이계화

73 작은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힘 _이나양

책이 머무는 곳 - 책들

Vol. 4 - 2023. 11.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발행처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

주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전화 043-201-4083

팩스 043-201-0680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

디자인 나누리기획

도서관과 인공지능 AI

글 장시랑 청주강내도서관 사서



1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2016년 3월 9일,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이 성사되었다. 총 5번의 대전을 치러 총 우승상금 100만달러 11억으로 진행된 대국은 알파고 4승, 이세돌 9단이 1승을 거둬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본 대전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SF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보던, 인간이 창조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창조자인 인간을 넘어서는 기념비적 순간이었다.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한 사람들과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강조한 사람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듬고 2023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GPT가 등장하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회사와 책들이 세간의 화제에 오르는 등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핫이슈인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공 협소 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ANI)

약 인공지능(Weak AI)이라고도 하며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다. 위에서 언급한 알파고처럼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현재 얼굴인식, 음성인식, 자동차 자율운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인공 일반 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강 인공지능(Strong AI)이라고도 하며, 컴퓨터로 사람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지능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을 가진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학습하고 교육하여 산업현장에 투입 시키는 것들을 의미한다.



2 미래의 자율주행 운전 AI

초(超) 지능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SI)

강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창조자인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능가하는 가상의 AI다. 로봇이 세계를 장악하는 공상 과학 영화, 즉 터미네이터 시리즈,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나오는 인조인간 등을 생각하면 된다.

도서관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AI 활용

도서관 품질 서비스 개선

도서관에서의 챗봇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으로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간단한 질문 등에 대해 답변을 한다. 도서관 직원은 이러한 단순 반복적 질의 등에 해당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렵거나 복합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더불어 도서관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도서관 품질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3 익산시립도서관 챗봇서비스



4 청주올림픽도서관

자동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 도서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의 도서관은 운영시간의 제한과 상주인력의 필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무인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폭 사라진다. 무인도서관에서는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대출에서 반납까지 가능하며, 유지보수 관리자를 제외한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큰 것은 비용적인 측면으로 일반 도서관 한곳을 지을 예산으로 다수의 무인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와 복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도서관에서 제공 하는 문화프로그램 등의 평생학습 제공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도서, 논문 등의 자동요약 학습지원

어려운 인문서, 과학 도서 및 논문 등에 좌절해 본 경험이 많을 것이다. AI는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300페이지 넘는 도서를 몇 장으로 수십 초 사이에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콘텐츠 요약을 위한 AI 도구는 이미 온라인에서 상용화되어 있으며, 기능을 강화한 AI 자동번역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기능은 외국어로 작성된 도서나 논문 등을 바로 한글로 번역하고 요약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외국자료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어 정보의 폭을 넓혀준다.



5 플라이북, 시 기반 자동 추천도서 제공

기타 도서관 업무에서의 활용

도서관에서는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반입 시, 사람이 메타 데이터 생성 등의 전산작업을 직접하여 자료를 반입한다. 현재는 이렇게 수작업을 하지만, 미래의 도서관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단순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고, 도서관에 개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어느 자료를 보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리즈 도서 중 결번 도서에 대해 관리자에게 구입 알림을 준다거나 도서를 추천받고 싶을 시, 트렌드, 주제, 현재 관심이나 기분상태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개인별 맞춤 도서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이다. 또한 도서 보관 시 습도, 온도를 쾌적으로 자율로 조정해주기도 하며, 고본(古本) 등의 보존에도 활용한다.

AI의 앞길

인공 지능은 도서관을 넘어 사회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단순 반복적인 사무업무를 인공 지능을 통해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명과 암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이 AI 로봇이나 컴퓨터가

창조자인 인간을 내쫓고 군림하는 내용의 영화와 소설들은 인류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창업자이며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올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1:1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림으로서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처럼 국제적인 ‘인공지능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을 뛰어넘는 초지능 인공지능이 일부 위험국가나 기업체에서 제재 없이 개발될 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인공개발의 창조자인 인류가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경계심을 갖고 안전하게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어둠의 경로로 빠지지 않게 훈계하는 것처럼 말이다.



6 美의회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7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빗 8
데이빗 8은 ‘왜 자기를 만들었을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그 질문에 ‘할 수 있으니까 만든 거지’라는 답변을 듣고 ‘당신의 창조자가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지 생각해 봤냐’고 반문한다.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지는 2023, 신규 비대면 서비스

글 신숙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청주시 도서관은 해마다 도서관 이용 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삶으로 찾아가는 문턱 없는 소통형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1. 도서관 방문 없이 정회원 가입, ‘비대면 도서대출 정회원 가입서비스’

청주시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편의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도서대출 정회원 가입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청주시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비대면 정회원 가입 서비스 시행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청주시 거주지 확인 서비스를 통해 도서대출 정회원 가입 및 가입 즉시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모바일 회원증을 통해 도서대출을 비롯한 전자도서관, 스마트도서관 등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카드 회원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2.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 ‘책 똑똑! 책배달 서비스’

‘책 똑똑! 책배달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게 책을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6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해 현재 운영중에 있다.

이용 대상은 임산부, 36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자,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도서관이 없는 면거주 주민으로 가까운 권역별 시립도서관 방문 또는 이메일(lib-cj@naver.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1-40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3. 도서관 공간을 ‘활짝’, 청주시 도서관 공유공간 ‘OPEN SPACE’

청주시 도서관은 시민의 근거리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관 공간을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공유공간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장소로 쓰이고 있는 문화교실, 독서동아리실 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권역별 9개 도서관 11개실이 공유공간 대상이다.

비영리 독서·취업·육아·교육 소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여마당 “공유공간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책과 함께 마음이 자라는 영유아들의 그림책 놀이터!

글 남미연 청주오송도서관 사서

청주시 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아기 출생과 동시에 선물하고, 그림책으로 양육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가정의 그림책 육아를 지원하는 ‘청주 아이러북(LoveBook) 영유아 독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그림책 독서축제(새맞이행사) 개최



새맞이행사



미술공연

작가강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송도서관을 비롯한 권역별 도서관에서 ‘가족+그림책 독서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주 아이러북 사업을 알리고 올해의 책꾸러미 그림책을 소개하는 새맞이행사, 선정도서 작가강연, 부모교육특강, 스토리텔링 미술공연, 봄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 책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책놀이 및 부모교육, 특별행사 운영

매년 상반기에 걸쳐 권역별도서관 8개관(오창호수, 청원, 금빛, 오송, 흥덕, 신율봉, 가로수, 금빛)에서 책놀이를 진행합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이야기와 노래, 리듬, 운율놀이, 손유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기와 엄마는 강사와 자원활동가가 이끄는 대로 즐겁게 참여하면서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게 되고, 아기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돕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그림책을 통한 태교 및 육아,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강좌 및 선정도서 작가강연, 그림책 공연 등의 특별행사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놀이



감각놀이극

자원활동가 및 공동육아동아리 육성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 워크숍 등을 지속 운영하여 책놀이 전문자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아기와 양육자가 모여 그림책을 읽어주고 음악·미술 등 책놀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여러 활동들을 응용해 양육자가 일일 선생님이 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진행합니다.



자원활동가 교육

공동육아동아리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부

(그림책 2권+양육자 가이드북+가방)



책꾸러미

구분	대상	인원(명)	배부기간	배부장소
1단계 도리도리	2023년생	5,000	연중	행정복지 센터 (출생신고시)
2단계 아장아장	2021~ 2022년생	1,000	5. 3.~ 소진시	권역별 도서관
3단계 쭈욱쭈욱	2019~ 2020년생	400	10. 21.~ 소진시	권역별 도서관
4단계 쭈욱쭈욱	2017~ 2018년생	400	11. 18.~ 소진시	권역별 도서관

※ 2023년 기준

문의 _ 오송도서관 사서팀 043) 201-4173

우리 서로(書路) 만나볼까?

2023청주독서대전 서포터즈 후기

글 박현아 독서대전 서포터즈

청주독서대전은 청주시에서 격년제로 운영하는 책문화예술축제다. 이번 2023 청주독서대전은 ‘우리 서로(書路) 만나볼까?’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으며 공연, 강연, 체험 등 책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청주금빛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step 1

사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나는 지난 2월 독서대전 서포터즈 공고를 보고, 도서관 행사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서포터즈를 지원하였다. 서포터즈의 역할은 홍보용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하고 본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청주독서대전을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포터즈 활동 전부터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글 쓰는 것은 자신있었지만 게시글 작성 외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한다는 것이 생소하여 조금은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이 있던 날 배운 콘텐츠 제작법을 활용해 카드 뉴스와 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담당자님의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들을 완성해 가며 활동에 점차 자신감이 붙었다.

step 2

청주독서대전이 운영되는 4월 15일과 16일! 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청주독서대전이 개최되는 금빛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동안 내가 홍보했던 프로그램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내 글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다. 청주독서대전에서는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유명한 작가들의 강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볼거리 가득한 전시 등 그야말로 꿀잼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가득했다. 서포터즈의 명찰로 프리패스권을 지닌 나는 강연과

공연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중 ‘정지아 작가 북토크’와 ‘목각인형 한마당’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지아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강연 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작가들은 어떻게 소설을 집필할까?’에 대해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본 ‘목각인형 한마당’은 마리오네트를 한국적으로 해석한 공연으로 국악과 한국 무용을 접목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인형극을 진행하는 배우들과 인형의 호흡이 좋았으며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관객을 압도했다는 점이 특히나 인상 깊었다.

도서관 내부에서 운영하는 강연, 공연 외에도 도서관 외부에는 체험 부스와 야외무대가 있었는데 별다른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었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접수가 가능한 점은 청주독서대전을 모르고 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뜻밖의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싶다.

step 3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및 누구나 즐길 수 있던 청주독서대전은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오랜만에 맞이하는 대면 행사여서 그런지 ‘만나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번 주제 ‘우리 서로(書路) 만나볼까?’가 마음속 깊이 와 닿았다.

2025년에 새로이 만날 청주독서대전을 나는 또다시 기다리며 ‘우리 다음에도 서로(書路) 만나요’



공간에 특별함을 담다 「서원도서관 재개관」

글 음수현 청주서원도서관 사서

분평동에 위치한 서원도서관이 리모델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지 벌써 8달이 지났다. 도서관 신규 개관이 건물의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라면 재개관은 개관보다 더 복잡하다.

기존에 있던 집기와 도서를 일정 기간 다른 장소에 이전 보관해야 하고 도서는 도서관 십진분류법에 의한 청구기호 순서대로 묶어야 한다. 다시 서가에 꽂힐 때 수월하려면 필요한 작업이다. 임시 이전된 12만 권의 도서는 온도·습도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폐기할 것들을 정리해 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12만 권의 책을 하나씩 바코드 찍는 장서 점검과 이용자들이 도서를 찾기 위해 검색하는 도서관리 시스템에서도 폐기 도서를 전산 작업했다. 또 자료실 명칭 변경에 따른 도서 위치 변경 전산 작업도 진행됐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상황을 잘 풀어가야 하는 과정이었다.

서원도서관은 리모델링 기획 단계에서 4층에 특화 자료실을 구성했다. 특화란 도서관에서 특별히 수집·관리·



인문학자료실 도서관 이용자 모습

운영하는 자료가 있는 것을 뜻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특화자료와 특화자료실·특화 주제 프로그램으로 삼박자가 갖춰져서 운영되는 것이다.

15개 공공도서관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자의 개성을 만들어나가고 이용자에게 새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성과 그 도서관만의 매력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

4층 전체를 인문학 자료실로 정하고 특화 주제인 인문학(철학 위주) 관련 도서를 5천여 권 모아서 인문학 특화존이라고 부르고 있다. 4층을 소개하면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있는데 인문학 특화 존이 따스한 느낌으로 정중앙을 둘러싸고 있고, 외곽에 종류부터 사회과학 일반도서도 비치되어 있다. 60종의 잡지와 25종의 신문을 볼 수 있는 매거진존, TV콘텐츠의 방에서는 가족 단위로 OTT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인문학 특화에 맞게 지난 3월과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독서아카데미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서아카데미는 「서양 고대 철학자와 깊이 있는 삶의 대화」를 주제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보고 고대 서양철학의 학파와 사상을 배우는 15회차 강연이 운영되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은 문인이 도서관에 상주하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김경진 아동문학가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어린이 오케스트라, 독서중인 이용자 등 도서관의 일상모습

2층은 어린이자료실로 영유아 놀이 및 호기심 공간으로 만들었다. 영유아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알록달록 동화 터널을 만들어 재미요소를 반영하고, 온라인 원화 전시를 향시 관람할 수 있다. 빈백을 놓아 오두막 형태의 편안한 공간에서 즐거운 책 읽기가 가능하다. 한 공간에서 유아들을 위한 온돌 마루 공간과 저학년·고학년·가족열람석을 구분하여 창가에서 안뜰공원의 푸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편안한 책 읽기가 가능하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을 본 적이 있다. 자국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커피 맛, 커피를 마시는 방식, 커피를 즐기는 공간을 새롭게 제안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체인점이 아니라도 커피를 다루는 그곳만의 개성과 공간이 사람을 오게끔 하는 명소들이 있다.

서원도서관도 도서관은 꼭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편리한 공간, 다양한 제안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오는 곳, 또 오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동화터널과 오두막 형태 독서공간 2층 어린이자료실 모습

도서관에서 미래과학 읽기!

흥덕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글 민혜영 청주흥덕도서관 사서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특화도서관이란?

청주시 14개 도서관은 각 관별로 특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립도서관은 지역향토·예술, 오창호수도서관은 미술, 오송도서관은 생명과학 등 특정 주제분야에 집중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각 관별로 도서를 수집 및 큐레이팅하고, 주제특화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흥덕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흥덕도서관은 지난해 3월 행복IT존 개소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미래과학 특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챗GPT 등 최신 과학 이슈를 양질의 강좌로 녹여내어 많은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풍성한 강좌를 선보여 IT 미래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리더러시(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상	강좌명	운영기간	운영 강좌	내용
아동	꿀잼! 코딩 클래스	5월~11월	14개 강좌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발맞춘 미래 역량 강화 어린이 IT 코딩 강좌 운영
	디지털 새싹	1.11.~2.23.	1개 강좌	어린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교육
	이야기가 있는 코딩	7.11.~7.22.	1개 강좌	책과 코딩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책을 읽고, 창작하는 활동 중심교육
가족 (전연령)	사이언스 투게더	10월	6개 행사	과학 분야의 전문가 초청 릴레이 강연 및 연계행사를 통해 온가족이 함께 과학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특화 공연 및 특강	5월~11월	10개 행사	미래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주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	독서아카데미 '챗GPT시대, 인문학에게 길을 묻다'	6.14.~8.16.	1개 강좌	인공지능시대, 인문학적 시선으로 통찰하는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
	슬기로운 인공지능 사용방법	7.13.~7.21.	1개 강좌	인공지능 이론, 윤리적 문제, 챗GPT 사용법,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신중년	일상 속 디지털 활용교육	7.5.~7.21.	1개 강좌	일상생활 속 불편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및 스마트폰 활용법

〈아동〉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과학 강좌, 이야기가 있는 코딩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운영했다. ‘이야기가 있는 코딩’은 종이책 독후 강좌를 탈피하여 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강좌로, 노트북으로 코딩을 짜 보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돌고래 훈련시키기, 초록섬 꾸미기 등의 미션 완료 방식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성인〉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어른들을 위한 과학 강좌, 독서아카데미 ‘챗GPT시대, 인문학에게 길을 묻다’

2023년 상반기는 전세계가 챗GPT에 대한 관심으로 뜨거웠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기피하는 고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만큼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중년〉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강좌, 일상 속 디지털 활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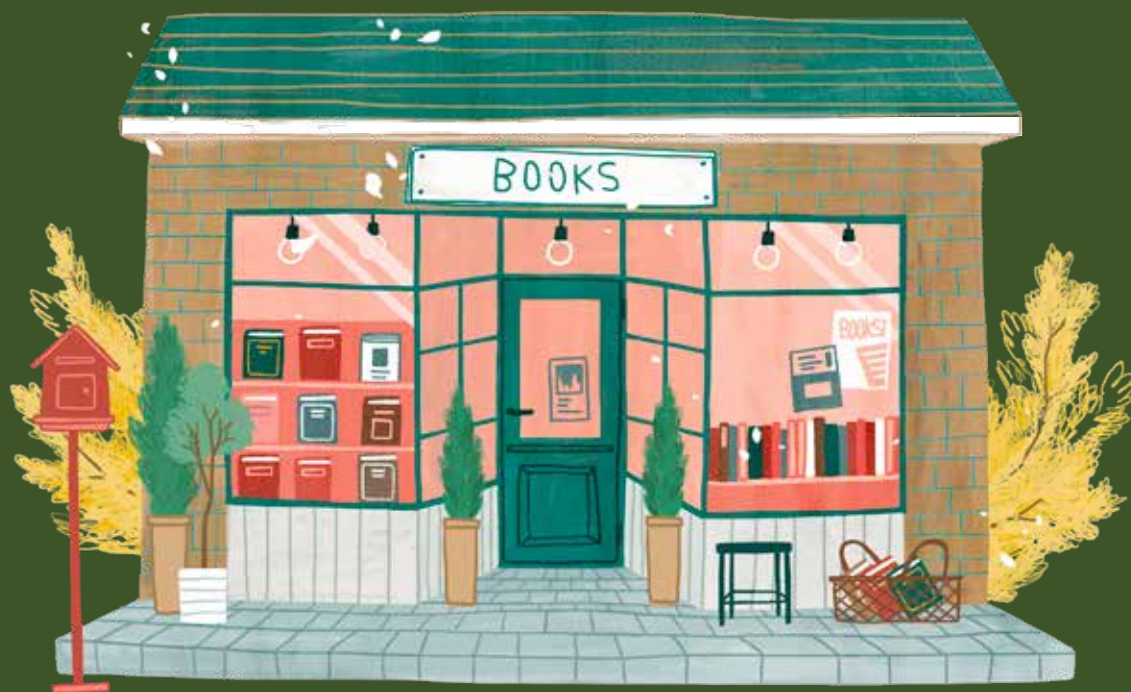
21세기 IT 기술 발전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디지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신중년들이 많다. 젊은 시니어 5060세대는 퇴직 후에도 왕성하게 문화활동 및 소비활동을 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페이,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등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일상 속 디지털 활용교육’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목마른 신중년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 강좌를 운영하고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해보고 매장에 방문하여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등 현장 실습까지 진행하여 수강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작가가
빛나는
순간

책 읽는 청주

선정작가 깊이 알기



일반 부문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님

❶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청주시 대표도서로 선정되어 청주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충청도 유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청주의 대표 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유독 반가웠습니다. 제 작품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 겁이 나기도 했구요. 제 작품을 사랑해주시고 대표 도서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❷ 소설의 배경이 해방 이후 7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2030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유를 짐작하신다면요?

2030 세대의 부모가 저와 함께 성장한 동년배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점도 있을 것이고, 2030 세대가 부모 세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무엇보다 2030 세대의 모든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이 책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❸ 소설 속 부모의 일화와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한 이야기 인가요?

부모님 일화의 경우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유산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등장인물의 경우 대부분 허구입니다. 캐릭터는 실제로 따온 것인데요. 그 캐릭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허구를 차용했습니다. 타인의 일화를 그냥 가져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기도 하구요. 그보다 현실에서는 캐릭터가 다양한 일화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소설에서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더 진실답게 하기 위한 거짓말이 소설이기도 합니다.

❹ 개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블랙 코미디로 풀어낸 것도 인상 깊었구요. 작가님의 평소 성격이 유쾌하신 편이신가요?

긍정적이긴 합니다. 소설 속 고상옥처럼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구요. 유머도 좋아합니다. 좋은 유머에는 고단한 현실을 견뎌온 저력과 함께 어떻게든 또 견뎌내려는 긍정이 담겨 있거든요. 고향 구례에 내려와 그런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삶을 견뎌온 노인들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유머가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소설 속에 옮겨왔을 뿐입니다.

❺ 작가님 고양이들 이름이 ‘그냥이’, ‘저냥이’, ‘구글이’, ‘애플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양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건가요?

그냥이, 저냥이는 제가 구례 내려와 문학과 인생도 이 정도가 끝이 아닌가 싶을 때 제자들로부터 위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저냥 살다 가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우울한 시절을 버티고 있던 때라 두 녀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건디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삶의 새로운 지점을 깨달았고, 그 덕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을 무렵 그냥이와 저냥이의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아니더라고요. 엄마도 책임져야 하고, 말라뮤트 호랑이와 치타, 고양이 네 마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데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뒤였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열심히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담긴 이름입니다. 영속할 것 같은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잖아요? 하하.

❻ 학창시절이나 평소에 도서관을 자주다니셨는지, 작가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이미지 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뿐이었거든요. 그때는 학교 도서관이라 해봤자 책이 몇 권 없었어요. 어깨동무, 소년중앙 같은 어린이 잡지와 어린이 세계명작선 정도였죠. 사람도 거의 없어서 혼자 어두컴컴한 서가에 앉아 온갖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어치웠습니다. 도서관을 생각하면 그때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나와 책밖에 없었던 공간. 마치 내가 세상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던 순간의 이미지요. 도서관에서 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아동 부문

오늘부터 배프! 베프!



지안 작가님

❶ “오늘부터 배프! 베프!”로 청주시 대표도서로 선정되어 청주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책읽는청주 시민 독자님! 아주 잠깐이지만 청주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대표도서 선정 소식에 반갑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청주 시민 독자님! 특히 어린이 독자님! 우리에게 배프!베프!가 있다면, 정말 신나겠지요? 없다면? 내가 먼저 배프!베프!가 되어 봐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사함과 영광스러운 순간은 모두 독자님 덕분이라고, 꽃처럼 하트를 날려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❷ 작가님 청주에 사셨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느 동네에 잠깐이나마 머무르셨을까요?^^ 청주시의 이미지는 어떠셨나요.

정말 오래전의 일인데요. 25년 전에 3개월 정도 내덕동에 살았어요. 청주의 첫 느낌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다정하고 여유롭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청주는 교육의 도시라고 소개하던 분들이 기억나네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절대로 일찍 오시지 않던 느긋함(?)도 기억납니다. ^^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레고 감사했어요. 짧지만 특별하고 반가운 기억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직접 독자님들을 뵙지 못해 아쉬움이 여전히 남지만, 젊은 시절의 열정이 떠올라 제게는 두 배로 좋은 선물입니다.

❸ 책의 주된 소재인 “급식카드” 이야기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생소한 소재 일 수 있는데요, 작가님께서 어떻게 “급식카드”를 소재로 작품을 쓰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현장을 떠난 지 오래여서, 특히 어린이의 삶에 밀착되어 살았던 시간에서 멀어져 있었기에, 급식카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연히 보게 된 광고가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급식카드를 들고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는 아이의 뒷모습이 담긴 광고였어요. 지금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급식카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 마음속 깊이 묻어 두었던, 어떤 아이들이 떠올랐고, 한때 열정적으로 만났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어린이입니다.

❹ “급식카드” 이야기는 다소 불편하고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밝은데요, 작가님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식카드에 대한 고정적 사고를 조금 유연하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급식카드는 여러 카드 중의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서진이에게는 맛있는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카드였죠. 어느 카드에나 제한점은 있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제약이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카드의 제약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했기에, 작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고 싶은 마음에 집중한 거죠. 어린이의 눈에 비친 불합리함,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어린이. 상황과 가난에 정복당하지 않는 단단하고 유연한 사고, 어쩌면 이상화된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수여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 서진이 같은 어린이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린이를 발견할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식카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카드는 불편해도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어린이가 끼니를 꼭 챙겨 먹을 권리를 최소한 이나마 보장해 주니까요

❶ <오늘부터 배프! 베프!>를 읽다 보면 현재 한국 아이들의 실감나는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 작가님 평소 아이들의 이야기를 엿듣는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웃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 본능적으로 어린이를 만나면 반갑고, 멈칫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했기에,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아직 제 안에 어린이가 살아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또 동화작가로 살다 보니,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제일 즐거운 건, 놀이터에서 뛰며 소리 지르는 어린이의 목소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메모도 해 놓고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문장은 모두 살아 있고, 의미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❷ 학창시절이나 평소에 도서관을 자주 다니셨는지, 작가님에게 ‘도서관’이란 어떤 이미지 인지 궁금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지면에서 자주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신간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학생일 때 도서관은 공부할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문 앞에서 줄을 섰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요. 하지만 그 시간은 열정의 시간이었고, 즐거운 추억이 많았죠. 공부도 했지만, 남자 친구를 만나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파는 우동과 간식들을 잔뜩 사먹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했죠. 공부하기 싫거나 잡념이 생기면, 책들을 뒤적이며 쉬기도 했고요. 열정과 휴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도서관은 그리운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코로나 19 이후 저는 도서관에 가지 못했고, 앞으로도 개인적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삶에 지쳤거나, 여유를 찾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여러 정보들을 접하기도 하지만, 가끔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 도서관에 가 볼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에 도서관에 다양한 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먹으며 우린 다양한 영

양분을 공급받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니까요. 청주 시민 독자님들과 특히 어린이 독자님들께 도서관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 이길…….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서관 같은 존재가 된다면 정말 보람 있겠지요? ^^



2023 청주아이라북 LOVE BOOK 선정도서 작가 칼럼

『아기가 태어났어요!』가 태어난 이야기

글 이루리 작가 / 세종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어느 그림책 아기의 탄생

그림책 『아기가 태어났어요!』(이루리 글/도희경 그림)는 2022년 10월 3일 천칭자리 날에 태어났습니다. 오늘이 2023년 8월 15일이니까, 태어난 지 만 22개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법 잘 걸어 다니는 그림책 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제가 쓴 말놀이 그림책 가운데 셋째입니다. 첫째는 2021년 9월 28일에 태어난 『아기 곰 ABC』(이루리 글/하선정 그림)고요, 둘째는 2022년 4월 10일에 태어난 『고릴라와 너구리』(이루리 글/유자 그림)입니다.

따라서 그림책 『아기가 태어났어요!』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첫째 『아기 곰 ABC』와 둘째 『고릴라와 너구리』가 태어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자세히하면 밤을 세워야 하니, 오늘은 좀 간단하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아어어로 만든 놀이와 성장 그림책



1단계 책꾸러미 선정도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기 곰 ABC』의 탄생

이루리 작가는 어떻게 말놀이 그림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저에게는 이순영이라는 짝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꿍이 바로 제가 다니는 북극곰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사실 이루리는 작가이면서 북극곰 출판사의 편집장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소원을 이야기하면 꼭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이루리도 짝꿍이 소원을 말할 때마다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컨대 이순영 대표가 먹고 싶은 걸 말하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주말에 꼭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볼로냐 국제도서전에 갔다가 이순영 대표가 어느 해외 출판사의 ABC 그림책을 보고 우리 출판사에도 재미있는 ABC 그림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 간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영어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꿈 이야기를 스마트폰에 쓰고 이순영 대표가 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자는 이순영 대표를 깨우는 일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영어로 꿈을 꾸고



게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쓰다니! 자랑하고 싶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기 곰 ABC』의 초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기 곰 ABC』는 신기한 영어 끝말잇기 그림책입니다. 『스트로 베리베리 팡팡』의 하선정 작가가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림 이야기로 그림책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둘째 『고릴라와 너구리』

그림책이 좋아서 저는 그림책 전문서점인 [이루리박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주고 싶어서 책방을 열었는데, 이제는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의 사랑방이자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루리박스]는 북극곰 출판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루리박스]에 놀러 온 이순영 대표가 다른 출판사에 나온, ㄱㄴㄷ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도 재미있는 한글 그림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곧 제 귓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짝꿍의 소원은 귀로 들어와서 어느새 가슴에 콕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미있는 한글 그림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신기한 꿈을 꾸다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꿈이었으니까요!

“ ㄱ 고릴라 알지? ㄴ 너구리도 알지? ㄷ 둘이 사귄대! ”

이쯤 되면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고릴라와 너구리』의 초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예 유자 작가가 그림을 맡으면서 제 글보다 더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ㄱㄴㄷ 로맨스 그림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야옹이도 태어났지요./어느 날 둘이 만났어요!
-본문 중에서



마침내 셋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ㄱㄴㄷ 그림책’을 만들고 나니 자연스럽게 ‘아아어여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음 그림책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모음 그림책을 만들어야 한글 그림책이 완성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ㄱㄴㄷ 그림책’의 주인공처럼, ‘아아어여 그림책’의 주인공도 고릴라와 너구리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아어여와 고릴라와 너구리를 어떻게 이어줘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고민은 하룻밤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주인공이 고릴라와 너구리에서 아기와 야옹이로 바뀌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의 초고가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는 바람에 그림 작가도 바뀌었습니다. 때마침 도휘경 작가가 저에게 원고를 요청하셨거든요.

도휘경 작가는 제 이야기를 훨씬 더 아름답고 섬세하고 감동적인 상상으로 그려냈습니다. 40페이지의 아름다운 그림책이 완성되었지요. 그런데 편집부와 마케팅부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를 보드북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아기와 야옹이와 엄마가 주인공이고, 탄생과 우정과 가족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으니 아기 때부터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24페이지 보드북으로 탄생했습니다. 8장의 그림이 편집되었으니, 도휘경 작가와 저의 아쉬움은 정말 컸습니다. 부디 『아기가 태어났어요!』가 오래도록 사랑받아서 언젠가 40페이지 양장 그림책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저와 도휘경 작가의 두 번째 그림책 『아가야』를 편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 얘기하듯 전하는 까닭은, 북극곰 출판사에 새로운 주간님이 오시면서, 이제 제가 쓴 작품은 다른 편집자가 작업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가 이루리와 짝꿍 이순영에게 그림책이란?

많은 분이 사랑으로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저희에게는 아이 대신 그림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그림책을 낳고 기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아이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배움을 얻듯이, 저희는 그림책에서 사랑과 기쁨과 배움을 얻습니다.

물론 산다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산다는 게 녹록지 않기에, 더욱더 많은 사랑을 담아 그림책을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림책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3 청주아이러북 LOVE BOOK 선정도서 작가 칼럼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작업 이야기

글 밤코 / 그림책 작가

근데 그 얘기 들었어? - 아이디어

〈근데 그 얘기 들었어?〉의 시작은 남편과의 대화에서다. 종알종알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그날도 이야기를 한참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어쩌면 그렇게 매번 다르게 들을 수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흥흥한 소문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우스갯소리였지만 변독 다음 그림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단어의 토씨가 점점 변해 아주 작았던 것이 커다랗게 변하는 소동극을 꾸미면 소문이 소문을 낳는 지금 시대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싶었다.

84년도에 태어난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게임이 하나 있다. 〈가족 오락관의 고요속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명의 게스트 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잘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몇 번의 말을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 최종 목적지의 사람에게는 시작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전달 되고 만다.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게임을 잘 섞어낸다면 "오, 이거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는걸?" 아이디어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



아이디어를 이야기로 만들자

아이디어는 씨앗에 가깝다. 그 씨앗을 얻었다면 씨앗을 성장시켜 나무로 기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아이디어는 언제까지나 아이디어일 뿐이고 그림책의 호흡 속에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진다. 그림책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페이지 수가 있다. 물론 만화책 형식이나 글이 없는 그림책 등 다양한 형태와 페이지의 그림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펼침면 16장, 32쪽의 그림책 구조가 가장 일반적인 장수로 여겨지고 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씨앗 한 개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 텅 빈 에이포 용지에 16개의 네모를 그려놓고 고민한다. 서론과 본론 결론의 마디 수를 나누고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1개를 최소 32쪽으로 뺄 뚫어낼 수 없다면 그 아이디어는 쪽정이일 뿐이다. 아싸! 아이디어 번쩍! 이라고 소리쳐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만들며 매번 깨닫는다. 이번에 쓰고 그리기로 한 이야기는 지나치게 교훈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재미있게 꺼내놓고 싶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사람보다 동물일 때에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게 접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주인공을 동물로 잡자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이야기의 시작은 두터지로 설정되었다. 두터지의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본 사물을 오해하기 쉽고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보는 지금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판 짓을 하느라 잘 듣지 못하는 동물들, 지켜야 할 소중한 알 때문에 세상을 더 공포스럽게 바라보는 오리 등 각자 경청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상황을 만들고 버스 정류장에 가족 오락관의 패널처럼 줄을 세워 놓고 나니 자연스럽게 16페이지를 꽉 채운 그림책의 호흡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가족 오락관 만세!



숨겨진 이야기

이 그림책의 왼쪽 페이지에는 동물들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상상으로 점점 커져가는 괴물이 그려져 있다. 이 두 페이지에서 가장 다른 점은 그림자다. 실재하는 것에는 그림자가 있고 허상에는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소문의 전말이 다 드러나고 얼마나 우스운 헤프닝이었는지 알게 된 이후에도 또 다른 소문을 물고 온 거미의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라는 말에 동물들은 우르르 몰려간다. 소문의 대상이었던 개미 조차도 다시 소문에 끌려가고 만다. 인간의 본능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호기심의 대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믿으려고 한다. 사소한 말로 시작된 것이 소문이 되고 서로를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마지막 소문에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은 동물은 곰이다. 개미를 괴물로 오해했던 일이 밝혀지면서 사과하고 반성했던 동물이다. 그 곰은 책을 읽고 있는 상황으로 설정했다. 책이 가진 의미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배우고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잘 들어야 하고 잘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와 모모모모모 사이

밤코라고 하면 아마도 <모모모모모>를 대표작으로 생각하시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1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독자분들이 가장 사랑해 주시는 책이기도 하다. <모모모모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앞선 두 작품 <사랑은 123> <근데 그 얘기 들었어?>와 그림 이 전혀 다른 방식이라 모두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야기를 꾸려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123>은 한글과 영어와 숫자를 혼합해서 이미지를 깨고 붙이는 방식의 작업을 택했고 <근데 그 얘기 들었어?>는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 음을 이용했다. 그리고 <모모모모모>에 와서는 한글을 돌리고 자르고 연결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의 반복을 통해 음률을 갖게 했다. <사랑은 123>, <근데 그 얘기 들었어?>가 있었기 때문에 <모모모모모>와 같은 실험적인 책이 탄생할 수 있었다.



<모모모모모>



<사랑은 123>

앞으로의 이야기

나에게 그림책은 취미이기도 하고 특기이기도 하다. 가장 사랑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내내 즐겁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먹고 입고 몸 낼 곳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생활을 감당해 내야 하면 때로는 지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이 없듯이 직장인의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생각한다. 창작의 가장 큰 무기는 끝벌과 같은 쉬지 않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책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아이디어 씨앗을 얻고 기름진 흙에 잘 묻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간헐적 작가의 창작 분투기

글 심진규 작가



저는 방학에만 글을 쓰는 간헐적 작가(?)입니다. 2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 온 교사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아이들과 신나게 놀며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면 창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글 쓰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학기 중에도 글을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게는 작가보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간헐적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가가 그렇듯이 한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인물과 상황에 몰입하여 자신이 만드는 이야기에 온전히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창작에 몰입하면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학기 중에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이 어디 숨어있는지 찾기 위해 역사책을 찾아 읽는 재미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작은 씨앗을 찾아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써보고 싶지만, 내부자라서 그런지 제가 쓰는 이야기는 자꾸

다큐멘터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학교 이야기는 다른 작가님들이 재미있게 써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저는 역사 속에서 매력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 제 상상을 추가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몰입하는데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쓴 동화 중 조선시대 백정 아이의 삶을 그린 것이 있는데, 이 동화를 쓰기 위해 백정과 사냥꾼에 관한 책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이야기의 열개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려고 하니 방학이 끝나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방학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방학이 되어 글을 쓰려고 하니 공부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이 과정이 세 번 정도 반복되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정작 쓰는 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오랜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쓸 때 저는 사건보다 인물에 더 중심을 둡니다. 그 인물이 매력적일 때도 있고, 미치도록 미울 때도 있습니다. 독도에 살던 강치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멸종시킨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에 관해 조사하면서 분개했습니다. ‘제주 4.3항쟁’ 당시 상관인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20대 초반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 관해 알아보면서 두 젊은이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며 이와 같은 인물들의 실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중립적이고 사실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상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쓴 책 중, 제주 4.3항쟁을 다룬 〈섬, 1948〉이 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이야기를 국방경비대에서 지내는 이야기 중심으로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분의 도움으로 2020년 여름, 제주에 취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948년 당시 20세였던 어르신을 만나 뵙고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 덤덤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947년에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남편, 남동생이 모두 서북청년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은 서북청년단원들에게 끌려가며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걸 신고 가겠다고 했더니 “곧 죽을 놈이 무슨 신발이야?”라며 그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르신의 동생은 열일곱 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날은 동생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방경비대가 중심이 아니라 제주 도민의 삶 속에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어떻게 지냈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취재 가기 전 구상했던 내용을 모두 고치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플롯만 짜고 다시 개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지내고 그해 겨울 방학에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저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 속에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고, 그런 날은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원지 모를 마음이 저를 노트북 앞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2022년, 책이 출간되고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제게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미리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그 사실을 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 있는 지 75년이 되었주. 소까이(소개령) 때는 말도 못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전에도 찾아뵈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실은 잊으셨는데, 75년 전 일은 잊을 수 없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실종된 남편이 어디 숨었는지 말하라며 고문을 받으셔서 손가락은 굵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굵은 손가락을 펴드릴 수는 없지만, 가슴 속에 각인 된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문학 중에서 현대사를 다룬 책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4.3항쟁’이나 ‘4.19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책 중에서만 말씀드리면 특히, ‘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문학은 선안나 작가의 〈잠들지 못하는 뼈〉밖에 없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뼈〉는 한국전쟁 당시 청주에서 있었던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힘든 이야기를 써주신 선안나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사북 항쟁,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찾아보기 전에는 몰랐던 사건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와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여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현대사의 장면들을 문학작품으로 쓰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사건의 진실이 전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주장이 다르며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우다>를 출간한 현기영 작가는 “제주 4.3이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되는 날, 제주 4.3의 영령들이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픈 역사를 들춰내는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현대사를 다룬 어린이·청소년 문학이 더 많이 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8광주민중화운동’처럼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역사는 물론이고, 아직 정확한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문학으로 다뤄져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일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사하거나 글로 쓰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일은 깜빡하시면서도 75년 전 일은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역사니까, 숨기고 일부러 들춰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서 글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좀 시끄러워도 되겠습니까

글 박현영 / 경남 교육청 마산도서관 문헌정보과 과장

대기업 전략기획팀장이 인권 변호사에게 거래를 시도한다.

“다음 선거 때까지 월 천씩, 지역구에 3억 정도 깎아주면 폼나게 복귀할 수 있을 테고 도서관이랑 체육관 정도 지어주면 그 다음 번엔 여의도 입성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번에는 대기업 회장이 정치인에게 흥정한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도서관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동별로 하나씩 지어놓으면은 다음 선거 때까지 든든하실 거 같은데” 정치인들, 반색한다. “회장님 이번엔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말에 드라마 몰아보기 하다 눈과 귀를 의심했다. ‘도서관’이란 말이 나올 줄이야. 32년간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한 나는 도서관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의 중요한 시설로 언급되는 게 그저 놀라기만 하다. 공공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집값도 비싸진다고 하니 도서관이 예전에 비해 지역의 중심 문화기반시설이 된 건 맞는 말인 거 같다.

처음 사서가 되었을 때 도서관의 모습은 학생들의 전용물이었고 독서실에 가까웠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서 자리 경쟁을 하였다. 때로는 그 긴 줄이 도서관 건물을 휘휘 감기도 했다. 그 긴 줄을 보며 뭔지 모를 사명감까지 느꼈다. 정숙을 넘어 엄숙에 가까운 도서관 공기 유지를 위해 사서들은 노력했고, 이용자들에게 조용히 하는 것이 최고의 이용 예절임을 교육했다. 그래서 때로는 사서의 신발 소리,

전화 통화 소리(업무 전화이었음에도)는 민원을 야기했다. 조용히 시켜야 할 사람이 되려 떠든다고. 도서관은 절대적으로 조용해야 한다는 것은 암묵적 약속이었다.

독서실에 가까웠던 도서관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다. 행사라고는 방학 때 전국적으로 실시하던 독서 교실이 거의 유일하였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외연도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개인 학습’은 여전히 도서관이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었고, 정숙하고 품격 있는 도서관은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였다. 어떤 도서관은 여자학습실, 남자학습실, 성인학습실, 학생학습실, 자유학습실 등 세분화하여 도서관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도 하였다.

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쉽사리 변하지 않았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 생각 또한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혜의 바다도서관 건립 업무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도서관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혜의 바다도서관은 폐교된 구암중학교 체육관 시설을 리모델링한 복합독서문화예술공간이다. 체육관은 특성상

층고가 굉장히 높다. 이런 특수성을 살려 12미터 높이의 내부 벽면 전체를 책으로 가득 채워 책이 주는 웅장함과 장엄함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층에 그간 사서들이 생각하고 꿈꾸어왔던 모든 공간도 한번 넣어보고자 했다. 꼭 숨어서 책 읽고 싶은 다락방, 자료실 내 카페, 레고방, 만화방 등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공간들로 채워나갔다. 그런데 체육관 중앙에 있던 커다란 무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고민해 봐도 묘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 거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앉아서든 누워서든 책을 읽는 거실로 꾸미기로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지혜의 바다의 심장이 될 줄은 몰랐다. 드디어 개관! 며칠간 다양한 축하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딱 며칠만 그 무대(거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무대가 있는 2층은 사람들이 독서하는 중심 공간이었다. 엄청난 소리의 음악공연, 오케스트라, 심지어 불까지 꺼야 하는 레이저 쇼까지. 과연 독서나 학습 하는 사람이 소음(학습자 입장에서 본다면)을 견뎌줄까. 민원 폭탄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결과는 정말 놀랍게도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공연을 즐겼다. 경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도서관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책을 읽던 사람도 잠시 멈추고 공연을 감상했다. 그 뒤 지혜의 바다 문화공연은 시그니처 사업이 되어 지금까지 매주 주말이면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독서와 차와 문화예술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 경남도민은 지혜의 바다에 열광했고 김해에 2호점

낸 다음, 3호점까지 꿈꾸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나와 사서들의 생각이 바뀐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마산도서관. 마산 도서관은 특히 학습 기능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도서관이었기에 3층은 온전히 개인 학습자들을 위해 분리된 공간이었다. 2021년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면서 학습 공간과 독서 공간을 통합하고, 정숙보다는 힐링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도서관으로 변신하였다. 독립된 학습 공간이 사라지면서 거센 반발과 민원도 있었고, 아직도 학습실이 없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자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변화된 모습에 호의를 보인다. 토요일 오후, 1층에서는 자료실 내에서 마술공연이 진행되었다. 그 소음(어쩌면)을 이제 이용자들은 고맙게도 이해해 준다. 2층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음악과 영화감상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조용히 집중 독서, 개인학습을 하고 있다. 또 3층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한창이다.

문득 아름답다 생각이 든다. 예전처럼 구획을 지어 여기는 독서, 저기는 공부, 또 저 곳은 행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 내 집 거실처럼 편안한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도서관, 이제는 좀 시끄러워도 괜찮다고!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독서 모임

글 박주은



꿈틀독서동아리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 차에..”

첫 차..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발한 것도 아니니 첫 차라고 하긴 뭣 하지만 내가 운전하는 오늘의 첫 차, 첫 시동, 첫 발동은 맛다. 나의 새벽 독서 모임을 나설 땐 항상 가수 방실이님의 유명한 히트곡 첫차가 떠오른다. 누군가에게 아침 일곱 시가 새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지하게도 아침잠이 많은 내겐 이 시간 기상이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약 5년 전부터 들어간 교육 모임에서 달에 한 번 모이는 회의에 독서 모임을 꺼 넣자고 했다.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적극 찬성했었다. 허나 아쉽게도 밤 10시 줌모임으로 정해졌다. 혼자선 절대 잠들지 않는 어린 아들 녀석으로 인해 도무지 밤 10시에는 꾸준히 길 의지의 약속도, 마음의 여유도, 체력의 여력도 없었다. 그렇게 독서모임 소식만 듣고 지낸지 얼마 후, 나의 궁금한 의증을 짐작한 독서 모임에서는 드디어 낮 시간대로 옮기게 되었다며 기뻐하라는 통보를 전해왔다.

근데, 근데 이번엔 모임 시간이 아침 7시라고 했다. 하하.

나에겐 낮 시간이란 아침 10시 정도부터 모이는 시작점인데. 아침 7시면 대체 몇 시부터 일어나 나서야만 하는 건지.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날 위해 혹은 그 외 밤 10시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독서 시간대를 아침 7시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니 기를 쓰고 몇 차례 얼굴을 비춰야 면목이 설 듯 했다.

처음 나갈 때가 아마 찬바람이 부는 때였나 보다. 아니 실은 그렇게 추운지 모르던 때일 수도 있다. 허나 난 한창 열선이 들어오는 돌침대에서 등, 허리를 지지고 있는 시간대라 찬바람 부는 이 새벽에 나가는 게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 새벽 서늘하고 으스스한 찬 공기가 폐 안쪽까지 훅 파고들 땐, 그땐 땀 마지, 별 보며 학교 가던 고3 수험생의 부딪힘이나 별 보며 출근하던 근로자였던 때의 비장함까지 떠오를 정도였다.

나는 안다. 내가 고르지 않은 책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맞춰 읽고 미션 클리어를 하는 행위가 얼마나 외로운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아무 정보 없이 걸어 들어가는 선정된 책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 그리고 그것에 따라 올라오는 수만 가지의 감정들과 심리적 역동.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차오름, 부딪힘, 높은 자존감, 지적 만족감, 의무감 등등은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건 확실했다.

인간이기에 눈 감기 전까지 내가 고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 불편함 등을 무릅쓰고 책 속 타인을 만나고 사회의 다양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책 읽는 수행자의 길은 계속되어야 함을,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미임을 되새기며 나는 아무도 모르는 나와의 전투를 매달 한 번씩 치른다.

수많은 나의 나태한 페르소나들과 싸우며 그렇게 새벽 독서 모임을 나가겠지. 그래서 난 이 노래로 첫 시동을 거는 나에게 매달 날 응원한다.

“새벽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첫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게으름을, 나태함을, 안주함을. 주저함을 모두 멀리 멀리...”



인생 2막에 만난 그림책의 세계

글 이미숙

청주시립도서관 시니어 독서회

순옥씨 그림책클럽

순옥씨 그림책클럽. 올해 시립도서관의 그림책 동아리 이름이다. 선생님의 성함이 다정한 친구 이름 같아 호감이 갔다. 가입 조건이 55세 이상이라니 세대 차이로 인한 정서적인 결끄러움도 덜할 것만 같다. 요가 가는 날과 겹쳐서 잠시 갈등했지만 요가를 희생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동아리 모임 첫 시간, 처음 만나는 낯선 얼굴들이 어색해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뽀뽀해 있는데 선생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다. 나열된 그림책 제목 중 가장 끌리는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인지, 올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등.

그림책 목록을 위아래로 여러 번 훑다가 「결코 늦지 않았다」란 제목에 나의 시선이 꽂혔다. 이 책은 9월에 다룰 예정인데, 내용이 너무 궁금하여 며칠 전에 미리 읽어 보았다. 겉표지에 시니어 그림책이라 적혀 있는 걸 보니 어른을 위한 그림책인가 보다. 정년 퇴임한 주인공 김팔복 씨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방향을 거듭하다 보디빌더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이다. 보통의 그림책보다 서사가 길고 글이 친절한 이 책을 읽으면서 김팔복 씨의 방향에 나의 삶이 오버랩 된 듯한 느낌, 지난 몇 년간의 내 삶을 들켜버린 느낌이 들어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김팔복 씨처럼 나도 퇴직 이후 5년간 많은 방향을 했고 작은 도전과 탐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들을 접하며 때론 설렘, 가끔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했다. 그동안 새삼스레 깨달은 점이 있다면,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는 존재는 책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장소는 도서관이나 북카페이며, 나를 들뜨게 하는 모임은 북클럽이라는 사실이다.



몇 년 전 가입했던 독서 동아리에서 그림책을 읽고 비경쟁독서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이나 읽는 짧은 그림책을 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토론 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때 처음으로 그림책에 대한 작은 관심이 싹트다고나 할까. 소설과 인문학 책을 주로 읽는 나에게 그림책의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낯선 세계이다.

그림책클럽은 3주마다 수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2월 첫 모임 때는 열두 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는 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원이 좀 줄었다. 간혹 출석률이 저조할 때도 있어 두 시간이 너무 험잡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건 기우였다. 회원들 모두 지천명과 이순의 나이를 통과 중인 탓일까,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한결같이 넘쳐났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짧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다짐은 번번이 지키기가 힘들었다. 참다 못한 회원 한 분이 제발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라는 편지를 날린 적도 있다.

선생님께서 책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 글 작가와 그림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 그림책에 대한 추천의 글, 면지 및 표제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다. 그리고 다 함께 스크린에 띄운 그림을 감상하며 아주 천천히 글을 읽어 본다. 작은 책으로 읽는 것보다 화상을 통해 보는 그림책은 훨씬 멋지고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 그동안 접한 그림책에서 그림을 제대로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다. 활자 중독인 나는 그림책의 글자들만 빠른 속도로 읽었다. 그림들이 글 못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의 정서를 얼마나 깊게 건드리고 매만지는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를 부끄럽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이것은 그림에 오래 시선이 머물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이다.

책을 읽은 후 이런저런 감상을 나누는데 늘 두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엔 할 말을 생략하고 마무리 되는 때가 많다. 책과 관련된 사진 자료, 관련된 음악, 더 생각해 볼 주제, 연결하여 더 읽어볼 그림책 소개 등은 안타깝지만 스치듯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늘 아쉬운가 보다.

그동안 여섯 권의 그림책을 같이 읽었는데, 「엄마의 초상화」와 「아버지와 딸」을 다뤘던 날엔 먹먹하고 눈물이 나서 울컥했다. 두꺼운 책을 미리 읽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데, 진짜 부담이 없는 북클럽이다.

올해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도서관의 어린이, 유아 자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고 낯선 할머니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그림과 짧은 이야기로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때론 나의 마음을 한없이 먹먹하게 해주는 그림책이야말로 인생 2막에 새롭게 만난 친구임에 틀림없다.

행복한 독서동아리, 가로수 도서관 투게독

글 이은미

청주가로수도서관 독서동아리

투게독

나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독서는 외로운 행위였고 나는 누군가와 함께 읽고 그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꿈꿔왔다. 코로나 전에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기까지 하면서 독서모임에 참여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그 모임은 파토가 났고 청주에도 독서모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도저히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어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마다 독서동아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년 9월에 기적적으로 가로수도서관 독서동아리 투게독에서 새 멤버를 모집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고문을 보자마자 즉시 신청순에서 늦어질까 부리나케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게 내가 투게독에 참여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가로수도서관은 2021년 4월 29일 개관한 신규도서관이다. 그 이야기인즉슨, 독서동아리의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그 점에 끌렸다. 아무래도 기존 회원들과의 융화가 걱정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과의 융화는 무슨, 우리 투게독 동아리는 너무너무 화목하다. 박명애 멘토님 아래 좋은 회원님들이 모였고, 2023년 들어 독서동아리 조직을 만들어, 최성수 회장님과 박정순 총무님이 든든하게 그 역할을 잘해주신다. 모임 초기에는 최성수 회장님과 김수현 회원님이 자꾸 커피를 사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죄송했는데 이제는 회비를 거두어 동아리방에 음료도 비치해놓고 편하게 모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에서 오시는 김수현 회원님은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임 때마다 대전의 비건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오셔서 입도 호강한다.



독서모임에서 읽는 책들도 너무 좋다. 작년에는 중간에 합류했기에 책 선정 작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2023년에는 회원들마다 두 권씩 책을 추천하고 멘토님이 연관된 책들끼리 엮어 일년치의 스케줄을 확정하게 되니 각자의 취향과 성격이 잘 반영된 책리스트가 나와서 그 책들을 읽을 생각에 설레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에서는 선정된 책에 대해 솔직하고도 깊이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책을 깊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도서관에서도 우리 독서동아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전용 동아리방 뿐만 아니라 전용캐비닛을 마련하여 비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독서동아리용으로 선정된 책들을 몇 권씩 구입하여 회원들이 대여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명애 멘토님에 따르면 2024년도에도 책 지원은 계속된다고 한다.

2023년에 들어 독서동아리에서는 많은 추억이 쌓이고 있다. 우선 올해 청주시 독서대전에서 독서동아리 한마당에 참여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박찬일 셰프 겸 작가님의 강연을 들었다. 그리고 강연 후에는 올해 청주시 대표 도서로 선정된 '아버지의 해방일지', '순례주택', '오늘부터 배프! 베프!'를 무료로 제공받았다. 특히 이 세 권은 나 또한 읽고 싶다고 벌써부터 생각해두고 있었던 도서들이라 더욱 기쁨이 컸다.



독서동아리 한마당에 참여해보니 다른 도서관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고 또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도 있었지만 우리 동아리가 참여인원이 가장 많아 왠지 으쓱해지는 기분 이었고 우리 동아리 또한 오래오래 계속 활동하고 싶은 소망이 들었다.

독서동아리 한마당이 끝난 후에는 뒷풀이로 금빛도서관에서 가까운 청주박물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수다도 떨었다. 덕분에 멤버들끼리 더욱 친해진 기분이었었고 그래서그런가 그 후 독서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에도 남은 멤버들끼리 수다를 한 시간 정도 떨고 모임을 파한다.

그리고 아쉽게도 나는 참여를 못했지만 5월 3일에 우리 독서동아리에서는 봄소풍도 갔다. 장소는 미동산수목원. 미동산수목원에 집결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한다. 카톡에 올린 사진을 보니 보물창기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정말 너무 아쉬운....

책을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투게독 독서 동아리.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 12명 오래오래 함께 활동하고 싶다. 너무너무 행복한 가로수도서관 투게독 독서동아리!!!

북유럽신화를 읽고

글 김수만

북유럽신화 | 닐 게이먼 | 나무의철학

망치 폴니르를 사정없이 휘두르는 괴력의 토르, 교활한 악당 로키, 세상의 끝 라그나로크.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이다. 최근 마블 시리즈의 흥행 메이커 주역들인데, 실은 이들은 같은 이야기 꾸러미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바로 북유럽 신화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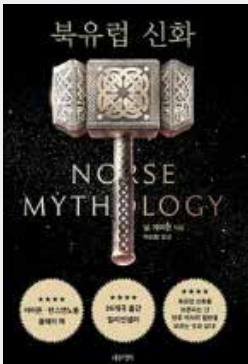
닐 게이먼 북유럽신화는 매력적인 인물들이 어우러진 매혹적 이야기로 꾸려져 있다. 책 표지에 자리한 철쭉 같이 어두운 밤, 흩뿌려진 은색 별가루를 배경 삼아 위엄 있고 화려하게 자리 잡은 폴니르는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저자 닐 게이먼은 판타지 작가이자 10대 포스트모던 작가인데, 과거의 유산인 신화를 세련된 필체로 현대적 걸작으로 멋지게 탈바꿈 시켰다.

북유럽신화는 재미있다. 그리스 로마신화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몰입감 넘치는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독자들의 흥미를 북돋을 등장 인물들도 한가득이다. 서두에 말한 토르, 로키는 말할 것도 없고 신들의 신 오딘, 미의 여신 프레이야, 로키의 사생아이자 신들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 절반은 시체, 나머지 반은 미녀인 헬, 거대한 늑대 펠리르 삼 남매도 흥미롭다. 이 외에 여러 신들과 거인, 오구 들도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다.

닐 게이먼의 북유럽 신화에는 재미난 여러 에피

소드들이 있다. 아름다운 시와 노래의 유래가 담긴 꿀술 이야기도 그중 하나이다. 매우 지혜로운 현자인 크바시르는 어느 날 먼 길을 떠났다가 바닷가 요새에서 난쟁이들의 땀에 빠져 살해당한다. 크바시르의 피는 꿀과 섞여 시와 학문의 재능을 담은 꿀술로 완성된다. 이후 거인 주통은 난쟁이들을 살해하고 꿀술을 차지하고, 은신처에 숨겨둔 후, 딸 군로드에게 지키게 한다. 신들의 신 오딘이 가만히 두고 볼까? 꿀술을 차지하기 위해 주통의 동생 바우기의 환심을 사고 꿀술이 숨겨진 장소로 향한다. 이때, 나름의 반전. 형 주통을 설득해 꿀술을 얻게 해준단 약속을 못 지켜 내내 미안해하던 바우기는 느닷없이 배신을 획책했고, 이를 감지한 오딘은 뱀으로 변신해 회피한다. 이후엔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 꿀술을 지키는 군로드에게 오딘이 접근해 거짓 사랑의 탐닉으로 속여 꿀술을 차지한다. 배신과 음모, 살인, 거짓 사랑이 어우러진 참극이 아름다운 시와 노래의 유래라니 매우 아이러니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는 던져준 에피소드이다.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토르의 거인나라 여행편’이 그것이다. 토르와 로키, 티알피는 거인들의 도시 우트가르드로 향하고, 그곳 왕인 거인 우트가르달로키를 만나게 된다. 우트가르달로키는 토르 일행에게 시합을 제안한다. 토르 일행의 각각의 장기를 묻고, 그에 맞는 상대를 우트카르달로키가 맞붙여주는 형식이다.



우선, 로키가 선봉에 섰다.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먹는 것에 자신이 있었다. 맞상대는 이름이 비슷한 ‘로키’. 온갖 짐승 구이가 들어있는 여물통을 양쪽 끝에서 서로 먹어치우며 펼치는 대결. 테이블 중간지점에서 만나 무승부가 예상됐으나 로키는 동물뼈까지 먹어치우며 로키보다 완벽한 식사를 해내 결과는 로키의 패배. 이후 나선 티알피는 빠른 달리기 솜씨를 자랑했으나 나이 어린 거인족 후기에게 연달아 패배하게 된다. 마지막 히어로 토르는 자신의 장기로 음주를 자랑했으나 거인의 뿔잔을 비우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장기 괴력을 과시했으나 다른 사람도 아닌 노파인 유모에게 패하는 수모를 겪는다. 잇따른 완패로 침울해진 토르 일행은 거인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 우트가르달로키는 실은 환각을 이용해 토르 일행을 속인 것이었다. 로키가 식사 대결을 펼쳤던 대상은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들불이었고, 티알피와 경주한 빠른 주자는 ‘생각’이었다. 토르가 마시다 실패한 뿔잔은 실은 망망대해 바닷물이었고, 씨름했던 유모는 ‘노년’이었다. 아무리 빨리 먹는 들, 산을 태우는 들불을 이길 수 없고, 생각보다 빨리 달릴 순 없으며, 괴력의 토르여도 노년을 이길 순 없다. 북유럽신화는 판타지 소설에 비견될 만큼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들(특히 거인족이나 괴물들과 신들의 대결)이 흥미를 돋우는데, 중간중간 존재하는 에피소드들은 화려한 대결을 넘어 성찰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점이 이목을 끌만하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하나하나 재미와 철학을 제공한다.

북유럽신화 마지막 이야기는 다른 신화와 차별화되는 점. 신들의 소멸과 생성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라그나로크, 신들에게 닥친 최후의 운명’이 그것인데 신들도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길고 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눈뜨고 못 볼 잔인한 참상이 이어지는 시대가 도달한다. 거대한 늑대 펠리르가 쇠고랑에서 벗어나 날뛰고, 거대 뱀 요르문간트, 그리고 완전한 악인이 된 로키와 지옥의 신 헬의 군대까지. 신들의 세상을 향해 공격이 개시된다.

신들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지만, 결과는 공멸이다. 모든 게 소멸된 마지막. 공허한 마무리일까? 그러나 게임은 다시 시작된다. 모든 걸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헤임달. 그는 로키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그드라실의 몸통에 인간 두 명이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있어. 여자 이름은 ‘생명’이고, 남자의 이름은 ‘생명에 대한 갈망’이지. 그의 후손이 지상에서 살게 될 거야. 죽음 뒤에는 항상 부활이 따라와.”

결국 모든 것의 소멸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죽음과 소멸에 대한 색다른 해석으로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에서 심오한 마무리를 엿볼 수 있다. 북유럽신화는 단순한 재미만 주지 않는다. 여러 철학적 이야기들이 곁들여져,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이야기 화수분이 된다. 그래서 더욱 매력적이다.



나의 안토니아

글 구경자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눈을 뜨고 나면 바로 어제가 먼 과거가 된 듯한 시간과 마주한다. 지식과 정보의 길잡이인 출판시장의 풍경 역시 시류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을 둘러보면 다양하게 쏟아지는 신간 서적을 무수히 접하게 된다. 넘치는 책 속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마음 편하게 시간을 거슬러 고전을 찾아 읽게 된다. 고전의 매력은 시대적 환경이 달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의 근원은 변함없이 통하기 때문이다.

내가 고른 책은 미국의 여류 작가 윌라 캐더가 1918년에 발표한 소설 ‘나의 안토니아’이다. 미국 중서부를 배경으로 고국을 떠나 척박한 땅에 정착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작가 윌라 캐더는 네브래스카주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황량한 초원에서 대평원을 개척하던 유럽 이민자들 사이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이 책은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품어준 고향에 대한 기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첫 장을 펼치면 베르길리우스의 '가장 행복한 날들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라는 여운을 주는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화자인 나와 주인공 안토니아, 쉬메르다 가족과 주변의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간다.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묵가적이고 평온하고 아름답다. ‘강가 모래톱은 유리처럼 반짝거렸고 버드나무 숲에서는 작은 불꽃이 튀어 오르고 있기라도 하는 듯이 햇빛이 가물가물 흔들려 보였다’ 이렇듯 섬세한 묘사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소설의 배경이 된 네브래스카의 시골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하다.

이야기의 흐름은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 나, 짐 버든은 열 살 때 부모님을 잃고 친척의 도움으로 조부모님이 사는 네브래스카 지방으로 가게 된다. 북미의 거대한 중부 평원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길에서 주인공 안토니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토니아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고국인 보헤미아를 떠나 척박한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안토니아는 쉬메르다 가족 가운데 제일 큰딸인데 아주 총명하고 활달하고 선량한 성품을 지녔다.

짐은 보헤미아에서 온 쉬메르다 가족과 인연을 맺으면서 가까운 이웃으로 지낸다. 네 살 연상인 안토니아와 친구가 되어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짐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고 안토니아는 결혼에 실패한 뒤, 홀로 아기를 낳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살아간다. 세월이 흘러도 안토니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고향인 보헤미아

출신의 쿠작을 만나 여러 명의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간다. 지금처럼 궁핍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꺾이지 견뎌낸 그녀의 예전 모습이 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고생에 찌들어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억척스럽게 가족을 부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안토니아.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힘들지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삶을 이어간다. 짐은 평범한 일상에서 인간 본연의 빛깔을 잃지 않는 안토니아를 지켜본다. 그녀는 어릴 적, 자부심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린 고향 보헤미아의 기억과 향수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되었을 것이다.

짐은 그녀의 삶을 통해 인간이 만족하는 삶이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원한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양팔을 베개 삼아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평범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안토니아의 표정과 작은 행동에서도 삶의 강렬한 힘을 느낀다. 고귀하고 숭고한 황량한 초원에서 자신을 찾아가며 어떻게 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굳건히 살아 내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녀에게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

흙 한 줌 없는 돌 틈 사이, 척박한 환경에도 생명력을 키우는 한 포기의 풀처럼 안토니아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의 본성과 닮았다. 자아를 간직한 몸은 늙어도 시들지 않고 생기가 있다. 가슴속에 품은 강렬한 힘은 지칠 줄 모른다.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씨는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푼다. 태고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에 순응하는 안토니아. 그것이 그녀 본래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나직이 읊조리는 짐의 독백이 들리는 듯하다.

형식에서 자유로운 글이라 주제 파악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독자의 관점에 따라 사랑과 추억, 우정과 자연에 순응 등 다양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편협된 견해인지 모르나 ‘나의 안토니아’는 그녀의 삶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진실 속에서 찾는 행복의 가치는 시대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



나의안토니아 | 윌라 캐더 | 열린책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글 정미향

‘세상에나,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나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한다면 충분히 반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의 경험과 함께 말이다.

어느덧 내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도 15년이 되어 간다. 그 학업을 마지막으로 ‘공부라는 것이 과연 더 하고 싶어질까?’ 했었는데,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마흔이 넘어서 다시?’ 하며 망설였다. 그때 때마침 이 책을 만났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그리고 새롭게 대학원을 도전하며 공부라는 것을 시작했다.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참 무성의했구나, 아니 바꿔 말하면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을 이끌기보다 끌려다녔다고 느꼈으니까.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나에게 힘이 된 한마디. 이 나이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는 나에게 이 책의 첫마디는 내 머리를 ‘꽁’ 내리쳤다. 공부가 나이 때문에 안 될 것은

없지만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때 보이던 책의 한 구절은 나에게 말했다. “그래! 늦지 않았지!”라고.

‘진짜 나’를 내달리게 해주자 결심했어.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결국 내가 열망했던 걸 움켜쥘 수 있었지 (중략) 덧붙이자면, 사실은 좀 늦었대도 괜찮아. 자로 잰 듯 준비된 사람만이 이기라는 법은 없어 (중략) 너, 절대로 포기하지마.

“그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늦었다고 해도 상관 없잖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망설이면 더 더 늦어지지만 할 뿐이잖아.”라고.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미련이 남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미련은 때로 ‘한(限)’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쇼펜하우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공부가 오롯이 나를 위한 일이란 걸.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고 나자, 공부를 대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도 마음을 바꿔 먹었다. 내가 나를 내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나니 스스로 한

뼉씩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날은 그 충만감에 설레기도 했다. 이런 걸 왜 망설였단 말인가.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인데 말이다. 마법 같았지만 책은 마법 같은 힘을 나에게 주었다.

‘죽기 살기로 해보지도 않고 자시 인생에 대고 변명하지 마라.’ -이영석

적당히 하고, 조금은 아쉽게 했던 지난날들이 더욱 아쉽게 다가왔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삶은 후회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변명을 찾았던 것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 “여태 그럴듯한 변명을 찾은 것은 아니니?”라고. 이제 변명을 끊어내 보자!

도깨비방망이나 요술 램프는 현실에 없다.

그렇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결단코 없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얻고 싶다면 시작해야 한다. 헛꿈을 꾸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으니.

‘되게 할 방법’을 찾아라.

‘이기는 사람은 바라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바라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조지 버나드 쇼

‘아이들은 어찌지? 내 일은 어찌고? 집안일은 그럼?’

되게 할 방법을 찾기 전에 어떤 조건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나’였다. 해 본 적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다른데 말이다. 하기도 전에 핑계를 찾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 내 삶을 좀 더 아끼자. 소중히 여기자.”라고 외쳤다.

책장을 덮고 난 뒤 마법처럼 달라질 내일의 내가 기대 됩니다.

결심했다면 도전하자. 부딪쳐보자. 이 책을 읽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배움이든 나도 함께 응원할 것이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 응원받고, 도전했으며 한 걸음 더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통해 주체적인 나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시작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결국
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 박성혁 | 다산북스

나의 인생 그림책 ‘나무의 시간’

글 이연정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시작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이유로 그림책을 읽어주며, 청주시 도서관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했다. 그림책은 단순히 글과 그림만으로 구성된 책이 아니었다.

작가가 그림책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없이 많은 말을 전하고 독자와 생각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 그 순간마저 경이로웠고,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수업을 들으며 아이들에게 맞는 책을 빌려 오고,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더욱 책을 좋아하고 깊이 읽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는 저녁 독서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림책 읽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아이들과 길을 걷다가도 책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대화 주제도 다양해지고 생각도 쑥쑥 자라나는 것을 느낀다.

그림책의 그림과 글을 함께 보면 생각이 확장되고, 여러 의미로 해석하게 되어 느끼는 것이 참 많다. 좋은 그림책은 하나의 예술작품을 접하는 기분이기도 하다. 그런 그림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드나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내가 나누고 싶은 이해란 작가의 그림책 [나무의 시간]은 “인생 그림책을 소개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꼭 이야기하는 책이다.

제목부터 나무가 서 있고 가지가 뻗어있는 느낌이 드는 세로 배치로 되어있다. 표지 속 웅장한 나무는 판형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크다. 어떤 나무일지? 눈이 쌓인 계절의 나무 이야기일까? 궁금증을 삼키며 책을 펼친다.

첫 장에서는 “내 이야기예요.”라고 하는 듯, 앙상하고 구부정한 나무가 나온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런 나무가 실제로도 더 잘 자란다고들 한다. 이 나무가 팔려 가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앙상한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그렇게 수많은 해를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존재로 많은 시간을 거쳐 각자 저마다 가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견디고 성장한다. 그 인생의 과정이 힘들 수도 있음을 이 책에서도 날씨와 시간으로 적절히 표현했다.

『긴 시간을 견딘 나무가 말한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멀리 나는 새들은, 높이 떠가는 구름은 알고 있겠지?』

이 구절은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지날 때면 스스로에게 되물던 질문과 비슷하다. 그래서 더 와 닿았던 것 같다.

『달빛이 나무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니?』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었다.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고 나에게 되물어본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저렇게 무성한 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비바람도 막아주며, 수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 가고 싶다. 든든한 뿌리로 흔들리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그들이 힘들 때 기댈 버팀목이 되고 싶다.

‘나의 나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무야 너는 나의 발자국이자, 나의 지금이고, 나의 꿈이야. 고마워.”

지금의 나는 이 책 속에서 봄별의 앙상한 나무쯤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많이 읽고 듣고 생각을 나누며 공부하고



나무의 시간 | 이해란 | 곰곰

죽음을 통해 드러다 본 삶, 〈참 괜찮은 죽음〉



참 괜찮은 죽음 | 헨리 마시 | 더퀘스트

글 이유진 / 청주상당도서관 사서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갈뿐... 건강할 줄만 알았던 나 자신이나 나의 부모님이 세월에 따라 달라짐을 느끼면서 최근 죽음을 앞둔 심정은 어떠할지 종종 생각해보곤 했다.

‘참 괜찮은 죽음’이라는 말은 모순적인 말이다. ‘괜찮다’와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죽음 중에서도 괜찮은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인 헨리마시는 의사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신경외과 의사라고 한다.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의사의 실수담이다. 큰 실수, 작은 실수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자들의 끝은 죽음이거나 식물인간이었다. 읽으면서 ‘삶이 참 텅텅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성실히 살다가 병에 걸려 수술을 받다가 의사들의 실수로 삶이 망가지고

크게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수술을 했었고 어머니 또한 그러했다.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오만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 책의 내용처럼 수술이 의사의 실수로 잘못되면 어쩌나... 의사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있으면 어쩌나,,, 내가 만난 의사가 과연 열심히 해줄 의사인지... 등등.... 그냥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듯하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한 가족의 가장이 식물인간이 되었던 이야기다. 그런데 그 가족의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 수술 중 사고가 일어나면 화를 내고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가족들은 오히려 의사를 위로했다. 열심히 수술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 탓이 아니라는 위로를 한다. 환자의 어린 딸이 의사에게 가서 보보를 해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 상황에서 초연하고 담담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나라면 과연 의사를 위로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소송하고 화를 내고 원망했을 것이다. 내 가족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며 위로하는 마음은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또 하나는 헨리 마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죽음을 대하는 어머니와 헨리 마시의 태도이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도 평상시처럼 집에 누워계시다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신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것보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맞고 싶다는 어머니의 바람 때문이다. 헨리는 어머니의 거동을 도와드리며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헨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 익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뭔가 안쓰러웠다. 죽음이 마음 속에서 익숙한 것이 되어버려 그것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이 없는 게 책을 읽는 내내 싫었다. 나의 생활에서는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지는데 죽음이 익숙해져서 슬퍼하는 게 무더진 느낌이다. 죽음에 무더지는 건 의사로서는 일상적인 것 일 수 있으나, 내 가족, 자식의 입장에서 는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

책에서는 “최고의 외과 의사는 기억력이 나쁜 의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기의 실수는 잊고 눈앞에 있는 수술을 잘 해내는 사람이 최고라는 말이다. 예전에 실수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 실수를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겠지만 그 실수로 인한 환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로 인해 한 사람과 그 가족 전체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저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되지 않는 말 중 하나였다.

이 책은 책의 주제에 비해 지루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의사들, 후배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교훈을 주기도 한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많이 반성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책으로 의학 쪽이나 보건 계열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회복의 시대 - 상실의 시대를 넘어 책에서 길을 찾다.

글 박지은 /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사서

2019년 시작되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4년간이나 겪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 역량을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지금은 집단면역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여전히 주의해야 하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의 시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많이 변화게 했다.

무엇보다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언컨택트 **uncontact**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로봇기술의 발달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face-to-face 일들을 언컨택트 업무로 바뀌는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력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기불확실성 지수는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매우 불확실했던 시기였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2019년도는 경제불확실성 지수가 2018년보다 무려 6배나 상승, 지금도 2018년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4배가 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고, 실업문제, 소비위축,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아직도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일어난 변화는 두 단어 ‘배달’, ‘중고거래’라는 키워드로 정의 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로 음식을 시켜 먹었고 개인의 경제상황 때문에 중고거래를 많이 했던 것으로 통계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여가생활의 대표인 영화관람도 규제로 인해 영화산업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OTT환경이 발달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었으나, 층간 소음이라는 대표적인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교육계에서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어,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졌고,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코로나시대에 학교에 다닌 친구’로 빗대어 부르기도 하는 사회현상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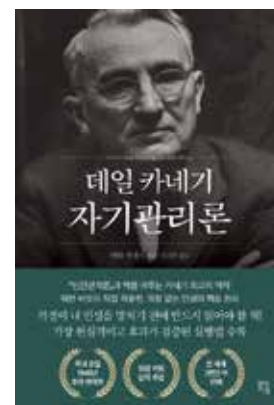
‘상실의 시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상실의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실의 시대를 끝내고 회복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회복을 외치고 있고 서로 돕고 의지해서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고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존재로서가 아닌 절대적인 개인적 차원의 존재로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지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책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누군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던가.

여기에 회복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상실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위로와 길을 보여주는 몇 권의 책들을 각 분야별로 소개해 보려고 한다.

자기계발 / 처세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 현대지성, 2021



일, 고민, 걱정엔 치이는 직장인, 습관적으로 걱정이라는 굴레 속에서 허우적대는 일상인들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책. 사소한 일 때문에 걱정이 내 인생을 파괴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줌으로써 인생을 위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어 내적 자아가 회복됨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



국내 소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윤정은 | 북로망스, 2023

세탁소에서 깨끗하게 옷을 세탁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얼룩들을 책을 읽는 동안 지워나갈 수 있는 책이다.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등 공존을 통해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속에서 곳곳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치유 받는 책이다.



일본 소설
달팽이 식당

오가와 이토 | RHK, 2022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 작은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린 소설. 시련을 겪은 주인공 링고는 떠난 고향에 되돌아가 작은 식당을 연다. 여러 사연을 가진 손님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이 링고에게 회복의 기회를 준다. 작가는 이러한 링고를 통해 현재의 아픔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의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회복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낸다.



청소년 에세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 다산북스

코로나 시대를 겪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환경 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정작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간접경험의 기회와 소통의 통로가 막히면서 청소년들에게 내적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엔진은 꺼져버린 결과가 아닐까?

작가는 본인이 겪은 실제 공부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 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교양심리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 프리티어, 2010

1930년대 말에 입학한 하버드 학생들의 삶을 72년간 추적하여 연구한 결과,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사람의 노화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뿐 아니라, 앞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성공 / 처세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마리사 피어 | 비즈니스북스, 2011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보이도록 애쓰는 우리에게 그것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원리들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건이 책을 읽는 동안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국내 에세이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손힘찬 | 떠오름, 2022

내 자신이 가야 할 삶의 지향점은 언제나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을 위한 것이 되고,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한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티끌만 한 것에서 완성되었다고 위안을 던진다. 그리고 저자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라 조언한다. 내가 중요하니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균형'. 현재 MZ세대들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할 여지를 주는 책이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사전적 의미가 담겨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부분에서의 회복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지만 회복의 시대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점점 비어져가는 마음의 크기가 원래 있었던 상태대로 돌러지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상실의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단어가 ‘rebuilding’, ‘renewal’, ‘renovation’ 이라는 단어들과 유사어라는 사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비어져 있고 상처 입은 마음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크기 자체가 온전해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 마음의 크기가 작아도 행복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한 구색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마음의 크기가 제대로 갖추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좋은 포도주는 좋은 부대에 담는다.”는 성경 말씀은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좋은 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항상 돌아보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를 돌아보고 온전하게 유지하고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추천한 도서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들로 상처 입은 마음의 크기를 어루만져 주고 낮게 해서 온전한 마음의 틀을 세우게 해준다.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마음의 크기가 온전 해져서 행복이라는 선물들로 가득 채워지길, 상실의 시대에서 저 너머의 회복의 시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바라보고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 드린다.



국외도서관 탐방이야기

피아체레! Piacere

글 이주화 / 청주시립도서관 사서

꽃의 도시 피렌체 (Firenze)

피렌체는 아름다운 문화와 경제적 풍요를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도시이다.
피렌체의 도심은 그 자체가 독보적인 예술 작품이고 6세기 이상 지속된 창작의
결실이다. 고고학 박물관, 우피치 미술관, 바르젤로 미술관, 산티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조토 세례당 및 종탑, 산 로렌초 성당,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마르코
수도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및 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그 유명한 건물 사이에 메디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이 있다.

무지라는 어둠을 지나 빛이라는 지혜의 세계로

메디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산 로렌초 성당 2층에
자리하고 있다.
도서관은 메디치가에서 수집해 온 필사본과 고대 문서 등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특히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건축물로 유명하다. 이후로 많은 건축가가
설계도에 따라 완성 한 후 피렌체 시민에게 공개하였다.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도서관 홀로 향하는 계단이다.
이 계단의 주변은 창문이 있으나 모두 막혀 있어 매우 어둡다. 어두움과 열람실의
밝은 조명에 대한 빛의 관계를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무지라는 어둠을 지나 빛이라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선다는 의미라고 한다.

1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계단
2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3 4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계단을 올라가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홀이 나오고 이 홀은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일반적인 도서관과 비슷한 밝기를 가지고 있다.
열람실 중앙 통로 양쪽에 독서대가 배치 되어 있고 옆면에 도서 목록이 부착되어
있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일자로 된 도서관을 쪽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는 메디치 도서관과
메디치가에 대한 유물과 정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원고 및 희귀도서 컬렉션의 보존 및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 연구 도서관으로
소장 중인 자료 **고서 및 희귀본**은 열람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나, 1년에 2번 정도 **약 2개월간**
고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연다.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 개념보다는 박물관에 가깝다.
도서관은 역사적인 인물의 역사적 공간과 메디치가의 자료를 복원하고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보존에 노력한다고 한다.
피렌체 시민들 역시 아름다운 문화 유적지를 잘 보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탈리아는 도서관이 책을 열람하고 독서 할 곳이라기보다 지난날의 유물을 보존하는 곳이라고 오랫동안 인식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뿐 아니라 방문한 도서관은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모습과 꽤 차이가 있었다.

방문한 도서관 중 로마국립중앙도서관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

로마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와 정치적인 이유로 이탈리아는 ‘국립’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이 8곳이나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도서관으로서 중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립 ‘중앙’ 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피렌체 국립중앙도서관,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수도국가였던 이탈리아는 19세기 통일국가가 되면서 수도가 피렌체에서 로마로 바뀐다.

문화를 보존하고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이 필요했던 이탈리아는 1861년 통일국가 되면서 수도 로마에 포괄적인 도서기록물을 제공하기 위해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을 개관, 21세기 와서 확장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5 로마국립중앙도서관 로비 유물 전시
6 고서
7 로마국립중앙도서관 목록함



8 로마국립중앙도서관 로비
9 로마국립중앙도서관 로비 유물 전시
10 로마국립중앙도서관 자료실과 정원



로마국립중앙도서관은 4개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료공간, 10층 규모의 장서보존관, 전시 공간, 연주회 및 공연이 열리는 아트홀 등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현대식 건물인 로마 국립중앙도서관은 1층에 11개의 열람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자료실마다 정원과 자연광을 충분히 살린 열람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자료실은 특별 컬렉션 자료실 및 주제별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 및 연속간행물 자료실, 희귀본 및 필사본 자료실, 지리 및 지도 자료실,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음악과 멀티미디어 자료실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실이 있다.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도서관 곳곳에서 엿보였다.

도서관 중앙 이동 복도에는 1880년도에 도서를 인쇄했던 인쇄기와 카메라 등 유물과 전시물을 배치하여 박물관의 역할도 보인다.

현재는 거의 볼 수 없는 예전 도서관 카드목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PC검색에서 누락되는 옛날 자료 검색을 위해 현재까지도 병행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신속성, 다양성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탈리아 도서관은 빛나는 유산들을 소장한 도서관으로 보존해 나가고 현대적 방식을 도입하여 나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디지털 사이의 아날로그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글 유동근 / 청주금빛도서관 사서

도서관 책방 투어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 입장하기도 전에 가운데가 뿔 뚫린 외관의 모습이 흥미를 유발한다. 뚫려있는 건물은 상쾌한 풍경을 제공하고, 벽면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벽화는 입장하기 전부터 눈을 즐겁게 해준다. 벽화는 5년마다 한 번씩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는 고객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만든 문화공간으로 현대카드가 운영 중인 라이브러리는 디자인, 트래블, 뮤직, 쿠킹, 아트 5가지로 나뉜다. 각 라이브러리에서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이중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는 장르별로 선별한 1만여 장의 바이닐*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반을 갖추고, 이를 청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건물은 1층 카페 공간, 2층 라이브러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카드 회원이면 2층 이용이 가능하다. 쾌적한 열람을 위해 동시 열람 인원을 30명으로 제한을 둔다. 운이 좋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며 대기가 있더라도 1층 카페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면 된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뮤직 라이브러리로 들어오면 층 전체에 은은한 나무 향이 느껴진다. 수많은 바이닐 중 원하는 음악을 찾아 직원에게 가면 바이닐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준다. 브루노 마스의 'Doo-Wops & Hooligans' 앨범을 LP판으로 들었을 때 이어폰으로 매일 들었던 노래가 생소했고, 묘한 기분 좋음을 느꼈다. 제한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이를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과 노래를 공유하고 싶다면 들었던 노래를 적어 신청해 보자. DJ가 노래를 틀어줄 것이다.

원하는 노래를 즐겁게 들었다면 희귀본 및 롤링 스톤즈 잡지 전권 보유 컬렉션을 구경해 보길 바란다. 레너드 코헨 [Leonard Cohen](#)의 'Songs of Leonard Cohen' (1967), 밥 딜런 [Bob Dylan](#)의 'Blonde on Blonde' (1966), 엘튼 존(Elton John)의 'Are You Ready for Love' (2003) 등 위대한 송 라이터들의 희귀 음반을 소개하는 전시를 구경할 수 있고, 1697년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최신 호까지 모아둔 방대한 컬렉션을 볼 수 있다.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는 디지털 세상 속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 들러 새로운 보물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마음에 들었다면 집안에 나만의 뮤직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바이닐 : 영화비닐이라는 소재에서 비롯한 명칭으로, 텀테이블로 재생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둥근 음반

- 1 건물 벽화
- 2 도서관 내부
- 3 도서관 바이닐 청음





도서관과 공간
도서관, 책방투어

60

산티! 제주도 속 인도, 북카페 '바라나시 책 골목'

글 유동근 / 청주금빛도서관 사서

‘바라나시 책 골목’은 제주시 동한두기길에 위치한 북카페이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바라나시 책 골목에 들어갈 때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공간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대문을 넘어 몇 걸음 가면 파란 지붕과 노란 벽이 어우러진 집이 보인다.

카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숲 냄새, 공간의 아늑함, 들려오는 이국적인 인도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사장님의 철학이 듬뿍 담겨있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있다. 여러 현인, 작가, 철학자들이 모여 이룬 일종의 “정신의 공간 지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사장님의 말처럼 카페 왼쪽에는 인디아, 연금술, 신화, 실존 철학에 대한 책이 모여있고, 오른쪽 통로에는 세계의 작가들, 세계문학과 관련된 책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주에 관한 책 등 다양한 주제 및 요즘 인기 있는 책들도 비치되어 있다.

책을 구경하다 보면 사장님이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문장으로 읽는 이에게 생생한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다.

바라나시 책 골목에 온다면 방명록을 꼭 보기 바란다. 방문자들이 제주도 여행에

느꼈던 감정, 복잡한 마음의 정리, 삶의 고민 등을 적어 놓았다. 방명록을 보면 사장님의 정신적 공간 지도의 도착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사람의 메모를 통해 인생 경험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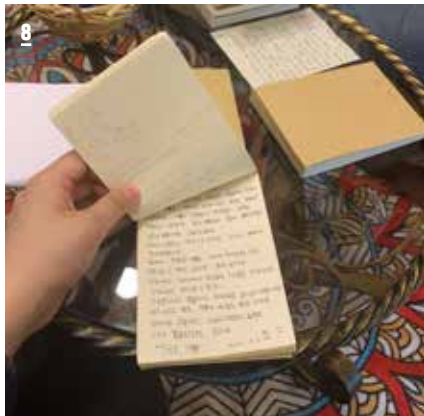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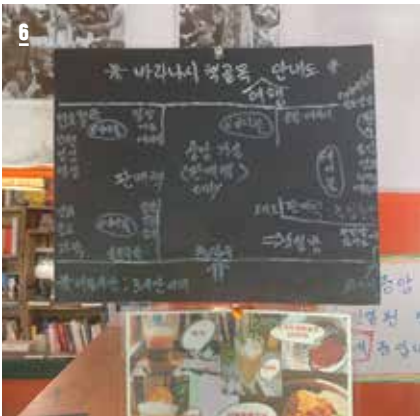
인도의 전통 음료인 짜이를 시키면 과자와 책 속 한 줄을 적은 종이를 준다.

이용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다. 음료를 맛있게 먹으며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원래 본업은 방송작가였고 책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제주도로 내려와 바라나시 책 골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사장님의 책 사랑의 정도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다.

바라나시 책 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면 ‘산티’라는 단어가 적혀있다. 평온, 평화, 조용함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바라나시 책 골목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책과 공간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곳, 행복함을 느끼는 곳, 자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곳이 바로 여기 바라나시 책 골목의 역할이다.

나만 알고 싶은 북카페, 바라나시 책 골목, 제주도 여행을 온다면 꼭 한번 들려보기를 바란다.

- 3 중앙 거실
- 4 카페 왼쪽
- 5 카페 오른쪽
- 6 카페 안내도
- 7 짜이와 책 속 한 줄
- 8 방명록



- 1 바라나시 책 골목 대문
- 2 바라나시 책 골목

머무는 그곳, 동네 책방

글 최지영 / 청주오창도서관 사서

북큐레이션 서점 ‘꿈꾸는 책방’

꿈꾸는 책방은 북큐레이션에 힘을 싣고 있는 서점이다. 2015년 7월 금천동에 문을 연 후 2022년 겨울 시청 앞으로 이사했다. 외관은 깔끔한 하얀 벽으로 되어 있다. 투명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베스트셀러 코너를 마주하게 된다. 이 코너에는 ‘베스트셀러의 참맛은 같은 책을 다르게 읽는 것이다.’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잠깐의 환기를 갖고 시선을 돌리면 그 밑으로 ‘서점에 들어서는 것은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는 문구가 보인다. 그렇다. 다른 세계에 발을 디뎠으니 이제 천천히 혹은 찬찬히 공간을 즐기면 된다.

입구 왼쪽으로는 ‘MBTI 유형별 책추천’ 코너가 있다. 각 유형별 대표적인 인물 사진도 붙어있어 각 유형에 속하는 유명인도 알게 되는 것은 덤이다. 바로 옆에는 책 처방전 ‘종이약국’이 운영 중이다. 각 상황에 따른 맞춤 처방 도서가 큐레이션되어 있어 고민이 있다면 이곳에 들러 책을 처방받아도 좋다. 오른쪽 벽면 빈 공간에는 책 속 문장이 적혀 있고, 그 바로 아래 그 문장이 담긴 책이 놓여있다.

이렇듯 꿈꾸는 책방은 모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책을 안내하고 있다. 한쪽에는 지역작가, 출판사, 서점, 독자를 잇는 ‘상생충북’ 책이 전시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책 읽는 청주’ 책도 전시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신간 도서, 추천도서 코너도 잊지 않고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곳곳에 적힌 책방지기가 쓴 ‘소개글’이 있어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입구에서 제일 안쪽에는 고른 책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특히 좌식 공간 벽면 서가는 어린이책들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점에서 간단한 차도 팔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 1 북큐레이션 서점 '꿈꾸는 책방'
- 2 꿈꾸는 책방 북큐레이션
- 3 꿈꾸는 책방 발자취 남기는 곳



- 4 우리문고 smart 공간사진
- 5 우리문고 내부
- 6 우리문고 전경

SMART 공간 ‘우리문고’

이곳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작가와의 만남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작가와 책, 독자, 서점이 만나는 공간의 특별함을 창출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정보는 서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로 받는다. 신청은 전화나 서점 내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서점 프로그램 참가비는 한 권 이상의 서점 도서 구입으로 받는다. 현재 ‘출판통통’이라는 북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2번 시낭송과 북토크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문고는 국보 41호 용두사지 철당간 광장 앞에 위치한다. 국보를 마주하고 올해로 11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 3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까지하면 4층이다.

1층은 카페, 서점으로 기획을 나눌 수 있다. 빼곡히 채워져 있는 책들을 탐색하다가 잠시 차를 마시며 머리를 식힐 수 있다. 서점 한쪽으로는 문구 코너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른 서점과 다른 특별한 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문고의 특별함은 3층이다. 3층은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SMART 창작 공간이다. 3층에 들어서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포토존이 다른 쪽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있다. 그리고 정면으로 프로그램실이 여러 개 있어 그림책, 역사, 실험, 인물 등 연령과 주제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실은 크기와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공간 대여가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유튜브 촬영을 위한 대관도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며, 각종 특강도 열고 있다.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톡, 인스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우리문고 프로그램은 서점이라는 공간에 한계를 두지 않고 학교, 아동센터 등 외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문고 3층을 둘러보고 다시 1층에 내려오면 밖으로 용두사지 철당간이 보인다. 고려 광종 13년(962)에 만들어진 문화재를 마주하며 우리문고는 미래교육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성안길 나들이를 하며 신구문화가 공존하는 우리문고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을 가야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점에는 그곳이 주는 장소의 힘이 있다. 그곳을 가면 책을 공유하고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은 도서관과도 통한다. 책, 사람, 장소가 있다. 그래서 올해 ‘꿈꾸는책방’, ‘우리문고’는 청주오창호수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문화 플랫폼 ‘우리동네 심야책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시간날 때 책과 머무는 그곳, 서점에 들러 잠시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그곳에 머무는 경험을 해 보자.

책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 주책공사

글 이수현 / 내수도서관 사서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들어서면 오늘의 주인공인 독립출판물 전문 독립서점, ‘주책공사’의 간판이 보인다. 널찍한 통창 너머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네 글자의 문장과 함께 해당 주제로 큐레이팅 된 책들이다. 거기서 시선을 조금 내리면, ‘읽다 죽어도 멋져 보일 책을 항상 읽으라.’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읽다가 죽어도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기대를 안고 서점 안으로 향했다.

들어서면 아늑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편안한 공간과 주책공사의 ‘현장소장’을 담당하는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한다. 엄청나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진열된 매대부터 벽 곳곳에 있는 선반까지 온통 책으로 가득하여 애서가라면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매력적이다. 또한 주책공사는 카페를 겸하고 있어, 한 편에 비치된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독서 삼매경에 빠져볼 수도 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저절로 벽 한 면의 상단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편지들에 눈길이 간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슬쩍 내용을 살펴보면 주책공사 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말들로 꽉 차 있다. 이 편지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책공사에 입고한 독립출판물의 저자와 출판사들이 소장님에게 쓴 감사의 편지다. 과연 주책공사에는 다른 독립 서점과 차별화되는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는 걸까?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도서들도 비치되어 있지만, 주책공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도서는 독립출판물이다. 독립출판물의 종류는 에세이, 소설 등 비교적 익숙한 형식부터 게임북, 서간집,



사진집까지 다채롭고 다양하다. 주책 공사에서는 책을 매우 직관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홍보하는데, 바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자신의 책의 홍보문을 책에 붙여두는 것이다. 손으로 정성 들여 쓴 홍보문에는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 책을 만들 때의 자신의 마음, 책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 등이 담겨 있다. 소개문을 통해 독자는 저자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책공사는 다양한 행사, 강연과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저자와의 만남, 독서 모임, 영화 모임, 줍깅(플로깅) 모임 등 종류도 다채롭다.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작가와 독자를 잇고 이를 넘어 지역사회 독서 커뮤니티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꼼꼼히 소개문을 읽다가, 꼭 읽어보고 싶어진 책 두 권을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귀여운 스티커와 서점의

전경을 담은 일러스트 엽서를 봉투에 같이 담아주신다. 포근한 일러스트 만큼이나 따뜻한 서점, 다양한 소통이 오가는 매력적인 공간 주책공사에 또 방문하고 싶다.

- 1 주책공사 내부 전경
- 2 주책공사 외부 전경
- 3 4 다양한 형태로 책이 전시된 내부공간
- 5 한 쪽 벽을 가득 채운 독립출판물 작가의 편지들
- 6 7 작가들이 직접 손으로 적은 책 소개



빨강고 동그랑고 폭신했던

글 황하은

우리 집에는 책이 아주 많았다.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셨는데 네게 물려주고 싶어서 책을 사 모았다”며 싱글벙글하던 아버지의 얼굴. 덕분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거실 책장 두 개는 칸칸마다 빈 곳이 없었다. 그렇게 거실 두 면이 전부 책이었다.

나는 아직도 어릴 적 책들의 위치를 말할 수 있다. 책장의 제일 낮은 행은 나를 위한 자리였다. 정기구독하던 과학 잡지 옆엔 다 읽으면 새 책을 마주하고 약속하여 숙제 해치우듯 허겁지겁 읽어 댔던 위인전 시리즈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맨 윗줄은 부모님의 자리가 됐다. 아버지의 소설책과 어머니의 전공 서적들이 사이좋게 두 행을 채웠다. 아버지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몹시 읽고 싶었지만 꺾깐하니 손이 닿지 않았던 나는 책장을 사다리 타듯 올라가 기어코 꺼내 읽었다. 책을 쥔 상태에선 도로 내려갈 수 없음을 깨닫고, 손에 잡힌 책들을 바닥에 내던졌던 기억이 난다.

읽고 싶다는 책은 다 구해주던 부모님, 책 사 읽으라 용돈 주시던 이모들,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새끼손가락 내밀며 서점 가자던 할아버지 덕분에 나는 굳이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됐다.

집이 도서관이었다. 이 사적인 도서관 구석에는 빨강고, 동그랑고, 폭신했던 그것이 있었다.

빨간 의자.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의자에서 보냈다. 반구형의 의자 속에 폭 잠긴 나는 책에 파묻혀서 나올 생각을 안 했더랬다. 의자는 깊었고,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는 달랑거렸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 몸을 일으키는 건 귀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책들을 모조리 뽑아내 위에 쌓아둔 다음, 다 읽은 책은 의자 밖으로 떨어 버리고 양 옆구리와 등 뒤를 뒤적여 다음 책들을 꺼내 읽었다. 몸이 빠근해도 일어날 생각은 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몸만 뱅글뱅글 돌리다 보니 종내엔 아주 기상천외한 포즈로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그런 자세로 책이 읽히냐고 물었지만, 신기하게도 읽어지더라.

빨간 의자에 쏙 들어앉아 책을 펼치면 나는 마법 빗자루를 타기도 하고, 신기한 버스를 타고 온갖 곳을 모험하기도 했다. 좀 더 자란 뒤에는 탐정 조수가 되어 베이커가를 돌아다녔다. 베르테르의 사랑에 울기도 했다. 그러다 햇볕에 몸이 노곤해지면 그대로 낮잠을 잤다. 빨간 의자에서 나는 온갖 책들을 읽었고, 내 취향은 그 책들로 만들어졌다.

시간이 흘러 해리포터 시리즈에 내 손이 닿을 수 있게 된 때, 내 친애하는 빨간 의자는 여기저기 실이 뜰어지고 터져서 못쓰게 되었다. 아쉬운 맘에 같은 모양의 다른 색 의자를 새로 들였지만 빨간 의자만큼 선명한 추억을 주지는 못했다. 그마저도

리모델링 때 내버리고 긴 가죽 소파를 들여오면서 내 전용의 둥근 의자는 영영 못 보게 되었다.

지금은 도서관에 잘만 다닌다. 집 바로 뒤에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이다. 집에 더 이상 책 쫓을 곳이 없기도 하다. 집 뒤 도서관에도 없는 책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상호대차를 신청하면 되었다. 도서관 창가 자리는 집보다 쾌적하고 바람이 잘 들어온다. 나는 밖에 나가 딱히 갈 곳이 없으면 도서관을 간다.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책을 펼치는 모든 곳이 내 도서관임을 안다. 그렇지만 엉덩이 붙이고 책을 읽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그 빨간 의자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 의자의 명칭을 나는 모른다. 다시 보고 싶어서 온갖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봐도 비슷한 것들만 나올 뿐 똑같은 제품은 찾을 수 없었다.

빨강은 강렬하다. 그 강렬함에 정말 홀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붙어 있었다. 이젠 그 형태를 다시 찾을 수 없고, 만들 수도 없겠지만 추억은 다정함과 안락함으로 남아있다. 여전히 내 추억의 자리는 빨강고, 동그랑고, 폭신했다.





청주시 포근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작가와
의 만남 - 윤송현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지역공동체의 시작, 작은도서관

도서관에서 시작 합시다

글 전명순 / 성화5단지도서관파레트
박미라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

2022년 청도협 워크숍에서 『모든_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만났다. 표지 안쪽에 친필로 적어준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 도서관에서 시작합시다’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다. 윤송현 작가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청주시 의원으로 활동 당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다.

“북유럽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나, 특히 스웨덴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스웨덴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도서관이 잘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에 소개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처음부터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다. 14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에게 성서를 읽게 했고, 목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서를 읽고 시험을 보게 했다.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고, 마을에서 함께 모여 교리문답과 성서를 읽고 가르쳐주는 것이 반복되면서 북유럽의 큰 문화적 특징이 되고, 성인학교와 학교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서로 글을 읽고 의사 표현을 하면서 자유롭고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가 확산된 것이다.

1 윤송현 작가는 청주시의원으로서 활동 당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도서관 발전의 원동력 ‘리터러시’



19세기 계몽사상과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했고, 교회와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금주운동과,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을 중시하며, 독서방을 만들

고, 학습 스터디 서클을 조직하여 점차 노동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윤송현 작가는 스웨덴이 노동조합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협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회의 문화가 공유된 그 바탕에는 ‘리터러시’가 있는데 ‘리터러시’란 문자화된 기록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19세기만 해도 리터러시는 귀족 등 특정 계층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스웨덴은 이미 그 이전부터 리터러시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서문화운동이 확산되고,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었다.”

도서관은 마을 한가운데 있다

윤 작가가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찾아보게 된 계기는 북유럽의 복지현장을 둘러보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북유럽의 어디를 가든지 ‘도서관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만,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하며 정치인들과의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은 모든 생활의 중심인 것이다.

“도서관 관계자들과 북유럽 탐방을 여러 차례 다녀 왔는데 전주의 ‘꽃심도서관’을 설계할 때 직원들, 건축 설계사들도 네덜란드에 동행했다. 네덜란드의 도서관을 둘러본 후

꽃심도서관 설계는 8번이나 변경할 정도였다고 한다.”

꽃심도서관은 작년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선진지 탐방지였다. 3층에 위치한 ‘우주로 1216’은 우리나라 최초의 트윈세대 전용공간으로 어른들은 입장이 불가한데 이날은 특별히 허용되었다. 꽃심도서관의 트윈세대 전용 공간은 북유럽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도서관들을 둘러보고 만든 것이라 한다.

윤송현 작가는 책 발행 후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으로 강연을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 도서관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벌써 3쇄를 펴냈다. 복지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데 많은 사서와 봉사자들, 주민들의 호응이 폭발적이라고 한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은 그에게 더 큰 힘이 되는 에너지원이다.

합리적인 도서관 지원체계 필요

강연이 끝난 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윤송현 작가는 “작은도서관은 취미나, 여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책을 통한 독서 활동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도서관 운영을 자원봉사자 기반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도서관답게 집중해서 운영할 사람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째,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1년에 5개~10곳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처음에는 사서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고용하고, 몇 년 동안 유예를 둔 다음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 째, 도서관문화재단을 만들어 법인이 위탁을 받아 경험자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작은도서관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 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강동구의 ‘작은도서관 웃는책’과 춘천의 ‘담작은도서관’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와 터키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내용으로 강의를 계속 다닐 것 같다. 전국을 다니며 의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자극도 받고, 부족함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문명의 뿌리’는 어디이고, ‘책 읽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졌는가?’, ‘책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문명의 뿌리인 그리스와 터키에 다녀왔다.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와 중세 르네상스 이후의 책 읽기, 공공도서관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도 방문 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송현 작가는 앞으로 여행할 지역과 도서관을 둘러볼 계획을 말하며 기대에 부풀어 얼굴에 연신 미소가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막히는 부분이나 단절된 부분에 대해 공부 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 영감을 얻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아 행복하다”고 했다.

윤송현 작가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만남을 통해 세세하게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었다. 그리스와 터키를 다녀온 후 그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산남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의

살만한 세상 만들기

글 이계화 / 산남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 봉사자

뭔가가 달라졌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에 놀리고 움츠러져있던 세상이 깨어나며, 격리되고 단절된 삶의 행태에 지쳐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들이 기지개를 켜는 듯 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때문이었을까?

일명 ‘코비드 19’라는, 유래 없이 넓게 그리고 오래 지속된 전염병 주의보 속에서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단절과 격리를 겪어내야 했다. 소소하게 치러지던 마을 행사나 작은도서관의 모임도 모두 미뤄지거나 취소되었고, 이웃들과의 눈인사는커녕 혹 병을 옮거나 옮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서로를 멀리 하던 2년 여의 시간이 참 지루하게 흘러갔다. 이러다 이대로 세상이 닫힌 벽으로 남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느껴지던 참이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달랐다. 오랜 팬데믹으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깟 바이러스로 소중한 일상을 접을 수 없다는 우리들의 의지가 더 강했던 듯하다. 소통과 어울림을 위해 작은 걸음이나마 내딛으려 노력했고, 그 애뜻함을 알기에 모두가 웃으며 모든 날을 즐겼다. 서로의 옆자리를 지켜 주며 따뜻한 온기를 지켜내고자 애쓴, 그냥 스쳐지나 보내기엔 아쉬운 산남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의 작지만 꼭 찬 노력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베란다 텃밭 만들기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가나요? 사람 만나러 갑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 감염자의 수치는 사람들에게 큰 우울감을 던져 주는 듯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 관장에게 연락을 해 왔다. 청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도서관 활동가들이 맡아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행사를 주관해 온 경험은 많았지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은 처음이었기에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도서관 활동가들이 모여 의논에 의논을 거듭했다.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입주민들의 정서적 치유와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힐링과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주제 하에, 입주민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그동안 소원해진 이웃들 간의 거리도 좁혀보고자 ‘베란다 텃밭 만들기’, ‘자전거 리사이클링’, ‘아파트 숲 체험’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베란다 텃밭 만들기’는 일종의 식물 테라피라고 할 수 있다.

모집공고를 통해, 원하는 세대에 허브4종류(애플민트, 루꼴라, 바질, 라벤더)와 방울토마토를 적절히 나눠 키우게 하고, 그 성장과정을 밴드를 통해 공유하게 하였다. 식물을 키우는 용기는 모두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친환경 수경재배에 대한 강의도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많은 양의 모종을 구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수확한 허브나 토마토를 활용하여 요리를 하고 나누어 먹는 과정을 통해 이웃 간의 정도 쌓고 식물을 키우며 힐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자전거 리사이클링’은 자원의 재활용과 선순환의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아파트 단지마다 최대 골칫거리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버려진 자전거가 아닐까 싶다. 고장났거나 작아져 소용없게 된 자전거를 방치하는 건 아파트 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멀쩡한 자전거들이 그대로 고물이 되어가는 것은 환경 차원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도서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하여 필요한 입주민에게 나누어주고, ‘자전거 타기’ 전도사로 앞장서고 계신 김연찬 교수를 초빙해, 독일의 자전거 문화에 대한 강연도 듣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과 간단한 수리법도 배워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파트 숲 체험’은 아파트 조경을 ‘정원’이라는 공간 디자인으로 확장시켜, 이 공간에서 입주민들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아파트 숲을 산책하며 각각의 나무가 가지는 특성을 배우고, 오래된 나무 속에 이끼와 곤충들이 어우러져 사는 설명을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 내 집 마당처럼 애착을 갖게 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공간으로 ‘아파트 정원’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함께 한 입주민과 아이들에게 내가 사는 아파트 한켠에 심겨진 풀 한 포기에도 이름을 의미를 갖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입주민들이 내 집 안마당인 양 모여 담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노력으로 삭막한 아파트 공간이 이웃들의 집합소가 된 것 같아 매양 뿌듯하다.



2 자전거 리사이클링

‘작은도서관’에서 큰 마을로~

도서관에서 해마다 진행되어온 각종 프로그램도 다시 활성화되었다. 특히 작년에는는 입주민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하여 그 의미가 남달랐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이 오래되고 당연한 비유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요리특강’이다. 책을 읽어 마음을 채웠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몸도 채워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요리로 만나는 이탈리아’라는 부제로 꼬꼬빵과 가지 라자나를 만들었다.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고, 또 참가한 입주민들도 서로 음식을 같이 만들며 얼굴을 익혔다. 낯선 이름의 음식이었지만, 레시피에 맞추어, 같이 재료를 다듬고, 볶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처음 본 이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요리에 곁들인 와인 한 잔이 더 달콤했던 건 비밀^^

우리 아파트에는 시인이 살고 있다. ‘야난의 저녁식탁’에 이어 두 번째 시집 ‘속숨하라’를 출간하신 홍산희 시인이다. 도서관 활동가로도 큰 몫을 하고 계신데, 손주들을 돌보며 언제 글을 쓰시고 다듬으실 시간이 있으셨을지 그 열정이 존경스럽다.

회색빛 단발머리가 고운 홍산희 시인은, 나눠진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겪었을 한 인간의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해 내었다. 역사 속에 한 줄로 간략화되었던 비극이 한 인간사로 구체화되고, 생생해지는 시간이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인생사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어, 늘어지는 수다가 끝이 없이 이어졌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리가 그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같다.

도서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남성을 위한 꽃꽂이 특강’도 있었다.

대부분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아이들이나 여자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어린 유아를 데리고 엄마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가 오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우리 활동가들은 남성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남성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분들이 참가해 주셨다.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어 아내에게 주었더니 가정의 화목함이 최상급이었다는 소감은 프로그램을 준비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답이 되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듣는 북유럽 이야기’, ‘아로마 여행’, ‘초콜릿특강’, 등등 그동안 고팠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렸던 한 해였다.

동네 사랑방이 사라진 아파트 문화에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공유하고 대출해주는 공간이 아니다. 가끔은 아이가 책을 읽으며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만나는 약속의 장소가 되기도 하며, 저녁 시간 아이와 손을 잡고 방문하는 가족의 나들이 장소가 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휴식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각종 정보와 복합문화를 공유하는 곳이다. 이런 공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기록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남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은 오늘도 서가에 꽂힌 책을 정리하며,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입주민들과 소통할까 고민하고 노력하며 도서관의 문을 활짝 열고 입주민을 기다린다.

4 아파트 숲 체험

5 요리특강

6 홍산희 시인 특강



작은 도서관을 이끌어 가는 힘

글 이나양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단단하게, 굳건히. 지금은 그래야 할 때

작은도서관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용자, 활동가들이 확연히 줄어 들었다. 작은도서관을 유지하고, 숨통을 트이게 해준 것은 줌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온라인 세상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강좌, 오프라인 모임 등에는 오지 않았다. 찌나게 독서동아리 모임을 하고, 밥먹고, 수다 떨고 정을 나누던 곳. 작은도서관은 동네사랑방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자연스럽던 현상은 조금 달라지는 추세다. “사랑방이 뭐예요?”라고 묻는 젊은 이용자와 적당한 거리가 좋다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나 그런 작은 도서관은 어색하기만한 오랜 운영자와 활동가들은 뭔가 데면데면하다.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영유아와 어린이 이용자가 감소하였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등을 가느라 바쁜 어린이 이용자들도 만나기는 어렵다.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진이 빠질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지만, 그때뿐인 듯 지속적 이용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작은도서관 현장은 이구동성 말한다.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도 전과 같지 않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활동가는 코로나 이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작은도서관 공간을 지키는 활동가를 찾기도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작은도서관들과 연대하여 무언가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는 작은도서관들이 늘고 있다. 적지만, 약간의 지원도 있고,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 사업들도 각 도서관이 할 수 있으니 굳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작은도서관들도 있다.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개책을 찾고 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 7,500개 시대, 이제는 10분 아니 5분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있다.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으로 밀접하고 주민을 만나는 작은 도서관들이 굳건하게 지역의 문화를 이끈다. 주제별 큐레이션과 더불어 도서관 공간 전체를 전시장처럼 만들거나, 한 칸에 전시공간을 꾸미기도 하고, 공원과 인접해서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사서선생님이 나가 읽어주고 싶은 그림책을그냥 읽어주는 거리도서관을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동네 주민이자 도서관 활동가인 이용자들이 마을을 기록하며 그리고 찍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도서관은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으로 작은도서관을 풍성하게 만든다.

유연성도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최고의 장점이다. 코로나 초창기, 휴관명령으로 모든 기관이 멈춰있을 때도 작은 도서관은 유연하게 움직였다. 쇼핑백, 에코백에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를 담아 비대면 대출도 하고, 오토바이 배달도 했던 대구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누구보다 발빠르게 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독서동아리를 운영한 것도 작은도서관들이 먼저였다. 공립보다 조직이 작고, 수직적이지 않은 것은 시도를 하기에 아주 용이한 조건이다.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작은도서관의 패기도 작은도서관의 위기 타개에 한 몫을 했다.

작은도서관은 어려워도 사람을 통해 스스로 배움을 얻고 만들어갈 때 힘을 받고 행복해지는 존재다. 그러니 아무리 이상한 움직임과 말도 안되는 시도가 있더라도 다시 다잡고 가야할 때이다. 우리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이용자가 도서관에 들어온다면 당장 중단하고 이용자와 눈맞춤을 하시면 좋겠다.

이은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표

작은도서관은 공동체 삶의 꽃이다

공동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공간이 생긴 지 오래되었다. 처음 작은도서관이 생길 때는 함께 책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임대하거나 방 한 쪽을 내어서 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법으로 만들게 되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고 아파트밖에 들 수 없으니 요즘 생겼다 하는 곳은 대부분이 아파트다. 법으로 강제하니까 해야 한다니 만드는 경우도 많다. 애절하게 필요한 공간이라기보다 만들어야 하니 만드는 쪽에 가깝다.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동화 세계에 빠져들던 부모들도 이제는 아이를 다 키워 지난날의 열정이 식고 밥벌이나 자기계발에 더 신경을 쓰는 때여서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은 정작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비워둔 곳들이 많다. 지난날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있게 마련이니 그 빈 자리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보다는 각자의 복지를 누리려고 할 뿐일까? 그래서인지 분양아파트처럼 형편이 좋은 곳이나 임대아파트처럼 자기 집이라는 인식이 없는 곳에서도 도서관을 꾸려갈 사람들이 모자라기만 하다.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생기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두고 운영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지위를 보장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넣은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법에 의해 모든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당연히 두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운영 인력과 그들에 대한 보상이나 운영계획 등의 세부적인 것을 보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공동주택이지만 자기 집으로 분양을 받아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 아파트에서는 물론이고 몇 년 살다가 다시 재계약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임대 아파트에서는 자기 집이라는 의식이 없으니 작은도서관 같은 공동 문화시설에 대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을 두고 관장이나 전담자를 두고 자원봉사자를 두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마나하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다. 관장이나 전담자는 입주민을 대표할 작은도서관을 책임 지고 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계획을 짜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손에 먼지를 묻히고 공동체 주민들에게 읍소해야 하는 일이다.

사는 동안 그곳은 터전이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자리에 맞는 마땅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규약에 당연히 들어갈 작은도서관을 강조하고 하나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책을 빌려보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 가려는 공동부담 원칙 속에서 누리고 보장하는 삶의 터전 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삶의 꽃이다.

이종수
참도깨비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질문하는 책 읽기

작은도서관은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책공간이므로 책을 읽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책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과 책모임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위 사람들과 토론하고 함께 책을 읽는 일이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전장에서 전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난관을 뚫고 책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청소년·직장인·주부·노인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이뤄 종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십 년 내공을 쌓아 온 사람들도 있고 좌충우돌 도전하다 책을 접는 연약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독서 마니아들은 대부분 독서를 방해하는 여러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고 그런 상황을 극복해낸 모험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책의 숲에서 만나는 고수들은 책과 마주한 시간, 책장을 넘기는 순간, 책에 빠져 자신을 잊는 그 모든 과정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책을 읽으면 그 무게를 감당할 근육도 생기는지 가방 가득 책을 넣어도 표정은 가볍기만 합니다. 일반인이 책의 숲에서 방향을 잃을 때는, 즐기는 경지에서 책을 읽는 고수들에게 한 수 도움을 청하거나 이들을 잘 관찰하며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혹은 ‘각종 책모임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유무형의 커뮤니티. 사무실이나 대학, 상가나 병원처럼 자주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와도 다릅니다. 공간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책꽃이 하나면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사회의 문화적 성숙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독립서점’이라고도 불리는 동네서점들이 골목 어귀에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색깔과 지역의 특성을 잘 담아 십년 백년을 이어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토양이다.

오혜자
초롱이네 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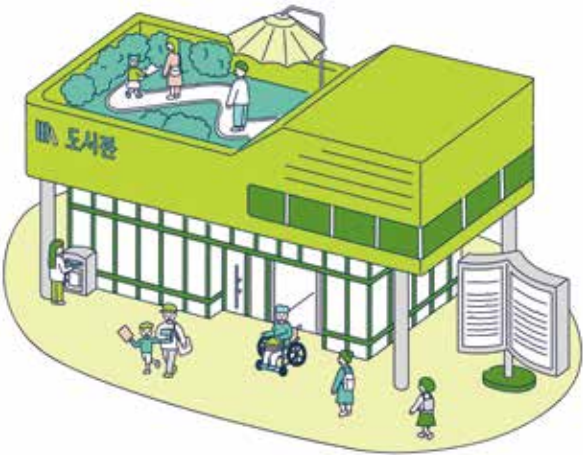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 또는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작은도서관, 우리 결의 따뜻한 안전망으로
- 소통과 협치의 민관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작은도서관, 건강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식의 평가지표를 만들어보자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은 도서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도와야하는 협의회, 협의회역할을 잘 수행 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방법을 모색해 보기
-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모으는 협의회가 되기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 협의회, 임원과 위원회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참여로 어려움 함께 나누자
-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삶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기
- 힘들수록 내가 먼저 나서서 같이 하자고 독려하자

청도협 정책포럼은 이렇게 과제를 남겨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이 수년째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실은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했다. ‘10년도 더 전부터 전담인력의 필요성과 민관 거버넌스 등의 토론이 있었다’는 한 토론자의 말은 오래된 작은



도서관의 관계자는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비교적 최근에 일하게 된 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10년째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문제였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했다. 또한 ‘지원’이라는 제도는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수반되는 행정적 일처리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자원활동가들이거나 봉사자들이기에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위해 애쓰는 운영자들은 현실은 힘이 들지만 포럼을 하는동안 내내 서로의 마음이 점점 전해 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이 나는 것이다’를 느낄수 있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소중한 지금이다.

*2022년 11월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실시한 정책포럼이 진행되었다. 이 글은 그때 발표되거나 토 론되었던 글의 일부를 발췌, 정리하였다.



‘함께 만드는 도서관, 함께 누리는 삶’

2023 청주시 도서관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변화의 시기에 청주시 도서관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도서관의 미래상을 이용자와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로 개최한 '2023 청주시 도서관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서관에서는 최초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 본선진출 6개 팀이 멘토링 및 팀별활동을 거쳐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과 결과를 만들어 냈 습니다. 향후에도 청주시 도서관에서 만들어 내는 정책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3 청주시 도서관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도서관명	팀원 (명)	아이디어 제목
최우수상	R-a.k (5명)	청주시 공공도서관 마스크트를 활용한 브랜드화 : 모두의 꿈과 함께 커가는 “꾸름이”
우수상	굿아이디어 (2명)	한 소리 다른 색깔
장려상	ZEP빠른자들 (3명)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청주시 도서관 활성화 방안 : ZEP있는 숲속 도서관
장려상	유잼뉴잼 (2명)	청주시 도서관 통합 SNS활용과 PR마케팅
입 선	청하다 (2명)	전통(典通) ‘전(典)하면 통(通)한다’
입 선	ISTP (2명)	LIB SPACE 구축



